

한글

第三卷 第十號 (十二月號)

叻七錢

昭和十九年十二月十一日 (第三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一回發行)

차 목

讀本 朗讀法에 對하야	沈 宜 麟 (1)
言語 敎育과 蓄音機	鄭 寅 燮 (3)
朝鮮語敎育 메코오드 吹入 製作의 經過	金 陵 人 (4)
띄어 쓰기는 우리글의 生命이다	李 錫 麟 (10)
로빈손 무인절도 표류기	(完) (13)
한글날 기념식 기사	(18)
한글 頒布紀念日에 際하야 (朝鮮日報 社說) 正音小史 (文湖岩)	
朝鮮語文 整理 運動의 今後 (李克魯) 한글 紀念日의 由來 (李熙昇)	
한글 誕生 四百 八十九年 (李寬求) 한글날의 由來와 意	
義 (崔鉉培) 한글 創制 (李萬珪) 한글 運動의 今後 (金炳濟)	
世宗大王과 한글 (李秉岐) 한글 創制의 苦心 (李九宰) 한글	
의 世界的 자랑 (李鉉)	(18 36)

한글 統一案 贊成員 募集

現今 各種 出版物이 一齊히 한글 綴字法을 쓰에 不拘하고 오직 聖
經만이 舊式 綴字法대로 써서、一般 靑年이나 學生에게 不便을 줌이
 많음을 切感하였나이다。

本會는 한글 統一案의 普及을 促進하게 할 뜻으로 優先 新約全書
한권을 統一案에 의지한 綴字로 改正 印刷하여 實費로 一般에게 提
供하기로 하나이다。

누구시든지 이 뜻을 贊成하시는이 姓名과 住所를 쓰시고
「贊成」이라고 적어서、左記 場所로 보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京城府義州通一丁目一三九

한글 統一案 普及會 白

讀本朗讀法에 對하야

沈 宜 麟

朗讀法이라 함은 목소리 卽 音聲을 내서 글을 읽는 것입니다.

무슨 必要로 목소리를 내서 글을 읽을까요?

글을 읽는데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눈과 마음으로 읽는 默讀도 있고, 조그만 소리로 입속에 넣고 읽는 微音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그 글의 뜻만 알고서 自己 혼자 爲하야 읽는 것이고, 소리를 내서 읽는 朗讀은 自己를 爲하야 읽을뿐더러, 여러 사람에게 들리기 爲하야 읽는 境遇가 많습나다.

卽 學校에서 先生의 指名을 받아서 읽는 때라든지 여러 사람이 함께 소리를 맞추어서 齊讀을 할 때와 같은 때는, 읽는법을 배우기 爲하야 또는 여러 사람에게 들리기 爲하야 반듯이 朗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自己 혼자라도 집에서 復習을 할 때 같은 때는, 읽는법을 熟達하게 하기 爲하야 朗讀을 할 때도 있고, 或은 그 文章, 卽 글에 맛을 들여서 興味로 朗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朗讀하는法 卽 讀調를 어떻게 할 것이겠습니까?

단지 목소리만 짹짹 질러서 뉘어놓고 高聲 大讀을 할 것인가, 以前 글방에서 읽듯이 몸을 前後 左右로 흔들며 한 特殊한 語調로 읽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대로 제각기 自由로 읽을 것인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問題로 말하면 大端히 어려운 宿題일 것입니다. 물론 斯界에 研究하시는 諸位中에는 여러가지로 좋은 說을 가지신분도 계시지요, 意見을 가지신 분이 尠실줄로 압니다.

그러나 아직은 朝鮮語의 朗讀法에 對하야 「이렇게 할 것이라」고 確實한 指示와 發表를 하여 주신분을 본 記憶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猥濫스럽고 獨斷的인 것 같으나, 實地로 生徒를 指導하여본 經驗上 平素의 느낀바와 생각한바를 말씀합니다. 讀書 卽 글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자의 思想과 感情을 말하는 대신에 文字를 늘어놓아 表現한 것 卽 文章을 解得하야 그 文의 作者와 같은 心情을 갖게 되어야 비로소 그 글을 읽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文章을 읽으려면 文章을 作成한 各字들 읽어야 할 것이요, 各字를 읽으려면 音聲으로 發音하여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各字의 發音을 連接하야 自己

의 言語를 만들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글을 읽는 것이란, 말을 文字로 적어

다시 말하는 練習을 한다 하여도 無

리니까, 글을 읽을 때는 말하는 것 같

이 精神을 잘 理解하여 기쁜 事實이면

슬픈 內容이면 슬픈 表情으로 感情이

야 할 것입니다.

는 어디까지든지 讀書요, 결코 俳優의 劇

이 아니므로 너무 야단스럽게 읽어서는 못합니다. 實

地의 말과 같이 感情을 表示하여 읽되, 곱고 정하고

아름답고 高尚하게 讀書의 本質을 잃지 않게 읽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글 읽는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들을 때에,

잘 알아듣고 그 뜻을 알고 느낌을 주게 하여 합니

다.

實地의 言語에 語調가 있고 抑揚이 있어서, 音聲의 大

小와 遲速이 있으며, 發音에 高低, 長短, 強弱이 있는

것과 같이, 讀書에도 讀調, 即 高低 長短 強弱 遲速

等이며, 句讀點에 注意하여 明確하게 읽어야 합니다.

朗讀法의 種類는 勿論 그 文章속이 있는 內容, 即

그 事實과 場面の 境遇를 따라서 다들 것이나, 이것을

文章形式上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分類할 수가 있습니다.

다. 即 散文으로 說明文 記事文 寫生文 感想文인 境



6818053

遇等과 對話文인 境遇와, 韻文인 境遇를 따라서 다 各

各 그 文章 性質에 一致하도록, 說明文이면 說明하는

것 같이, 感想文이면 感激한 것 같이, 對話文이면 對話하

는 것 같이, 韻文이면 詩를 읊는 것 같이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文章 손에서도 여러가지 境遇가 있으니

가, 꼭 한결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요, 大略을 말할 입니

다.

實地의 具體的 朗讀法에 이르러서는 文字로 說明하

기가 매우 不充分한 點이 있으므로, 指導한 兒童의 音

聲을 빌어서 레코오드에 吹入하여 今後 研究 材料의

參考로 드리는 바입니다. 十月二十八日

(四頁에서) 明朗하고 참된 朝鮮 兒童들의 標準語音이

國際的으로 地球를 돌고 돌고 滿洲, 하와이, 其他外地

에 있는 朝鮮 兒童의 우리글 教育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은 想像 以上일 것입니다. 그리고 朗讀 以外の 音樂

等은 特別한 注意로 世界 名曲을 利用하였으니, 이런

點으로 一面에는 情熱를 도읍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試驗인만큼 유감되는바가 있겠으나, 장차

改良해야 될 點도 있을 줄 압니다마는, 여러분의 많은 贊

同을 비나이다. (한글날 試聽會 說明 抄)

言語教育과 蓄音機

鄭寅燮

말과 글은 人類文化的 가장 重要な 基礎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發達되지 못한 社會를 우리들은 野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古今 東西를 勿論하고 사람을 教育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말과 글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배우는 音聲은 글을 적는 文字보담 더 根本的인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원래 말소리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글자가 생긴것이요, 또 그것을 土臺로 해서 비로소 綴字와 文法이 成立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發音學이라든지 좀 더 크게 말하면, 音聲學이란것이 發達되고 모든 言語研究는 여기다가 그 基礎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音聲學에는 여러가지 研究分野가 있습니다. 마는 그 實際的 目的을 말하면 正確한 音聲을 通해서 말과 글의 運用을 도읍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十九世紀 後半부터는 言語教育에 큰 改革運動이 일어나서, 音聲學을 土臺로 하는 同時에 말의 心理와 內容을 直

接으로 實物, 그림, 行動等을 通해서 傳達하되, 科學的 順序를 밟아서 가르치는 新教授法이 旺盛하게 되었고 그 成果도 놀라울만한 것이 있습니다.

더구나 文明이 될수록 交通이 密接해지니만큼, 現今 文化가 發達한 社會는 말과 글의 統一을 부르짖고, 各地方의 사투리는 漸漸 적어지는 同時에 文化中心地를 土臺로한 中流 以上の 現代語를 그 標準語로 定하고, 여기에 비추어서 言語의 教育을 合理化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디오 放送과 發聲映畫와 蓄音器 같은 機械를 利用하기도 하는데, 그중에서 레디오는 時間의 制限이 있고, 發聲映畫는 반듯이 教育的으로만 되었다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蓄音機로 말하면, 소리가 寫신 肉聲에 가깝고 正確하게 들리며, 特히 時間의 制限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自由롭게 反復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現今 先進社會의 學校에서나 家庭에서는 이것을 많이 使用하게 되며, 內外 國語를 勿論하고 語學의 音聲 方面에 있어서 蓄音器의 運用을 더욱 重要視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레코오드 製作者나 吹入者는 勿論, 教師와 學父兄 그리고 學習者까지라도 다 가차 自覺해야 될줄 압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蓄音器로 語

文敎育의 重大 試驗을 하게 되었으니, 이번이 朝鮮 最初로 된 朝鮮語敎育 레코오드가 이것입니다。對內的으로 是 語文의 統一과 兒童의 情緒敎養과 家庭의 趣味를 提供하게 되고, 對外的으로는 外國人의 朝鮮語學習 또는 朝鮮語文 研究의 좋은 資料를 提供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이 레코오드의 出現 現狀을 捉게 볼 수가 없습니다。더구나 한결음 더 나아가서 蓄音機 吹入이란것은 語學專門家들에게는 評準語音 研究와 運動에 關連될뿐 아니라, 地方語의 吹入으로 말미암아 必然的으로 산 말의 採集을 할수 있고, 또 時代를 따라 없 어져가는 여러가지 말과 사투리를 數百 數千年 두그라도 保留시켜놓을수 있으니, 오늘날 語學者들이 古語를 研究하는데 있어서 文學上으로만 記錄되었지, 實際로 그 산 發音을 들어보지 못한 까닭에 그 眞正한 音價가 무 엇인지도 모르고 各人各說로 推定하는수가 許多합니다。 例를 들면, 今日 여러가지로 問題되는 한글 古字中의 △, ㅎ, ㅇ, ㅅ, ㅈ, ㅊ, ㅌ, ㅍ 等の 音價를 確定하기 어 려운것입니다。만일 그때 世宗大王께서 이런 音을 吹入 해두었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便利하며, 現在 가지고 있는 音外에도 國際的으로 자랑할만한 音이 얼마나 많 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音聲學 方面에 많이 論議되고 第一

回, 第二回의 萬國音聲學大會에서 研究된바 「音韻論」 「포넌」 「다이어폰」 「폰」等の 特別問題가 여기에도 關連되는것입니다。即 한 個人의 發音에도 前後音의 關係로 또는 그때그때 形便에 따라 影響을 주는 同一音間의 異同과 다른 個人間의 同一音의 異同에 對한 限界等 이런것을 研究하는데 사람의 말은 際間的으로 지나가고마나, 나중에 그 소리를 다시 實證하지 못하 므로 時間的 存在인 音聲을 吹入이란것으로서 空間的으로 固定化할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有效한것이겠 음니까。

以外에 複母音 研究에서 그것이 最高이나 또는 合成音이나 그리고 그 要素가 무엇이냐를 分解하는데도 그 音을 吸入한後에 다시 그것을 逆行으로 版을 돌려 들어 보아 그 複合音을 明白히 認識할수 있던 蓄音機까지 있음입니다。할말과 여기에 關連된 實驗音聲學에 對한 것이 많거나와, 이번에 여기서는 略하고, 끝으로 附加 하고서 하는것은 이번 내가 이 敎育 레코오드를 作成하게 된 動機로 各國現狀과 그 敎材의 選擇과 吹入 順序編에 對한것, 그리고 監督할 때의 苦心 其他를 말 할것이로되, 仔細한것은 그만두고, 이 어려운 일을 끝까지 가치 힘껏준 沈宜麟氏, 李鍾泰氏에게 感謝하는바이며,

……(以下는 第二頁에 繼續)……

朝鮮語教育 레코오드

吹入 製作의 經過

오케 文藝部 金陵 人

이번 한글날 紀念式 餘興으로 朝鮮語教育 레코오드의 試聽會가 있으나, 一般人에게 많은 獎讚을 얻었다. 朝鮮語教育 레코오드는 이것이 처음으로, 오케蓄音機會社에서 특별히 많은 努力을 더하여 製作한 것이다. 이것이 朝鮮語 教育에 貢獻이 크리라 생각하므로, 該社 文藝部長 金陵 人氏에게 請하여, 그 레코오드의 吹入 製作에 關한것을 아래와 같이 紹介한 것이다. — 편집인 —

◇朝鮮에서 레코오드가 그 量으로 每月 얼마씩이나 生産되어 街頭로 家庭으로 나가느냐? 이것은 누구든지 궁금히 여길 문케이기에, 먼저 이것을 말하겠읍니다. 現在 朝鮮에 每月 꾸준하게 조선말 新譜 作品을 發行하는 레코오드 製作會社가 六個所가 있습니다. 가나다 順으로 꼽아보면, 비터어, 씨에론, 오케, 쉐릴비아, 래평, 코리돌입니다. 이밖에 今年에 들어와 새로 생긴 會社가 二個所가 있으니, 러키와 코리아입니다. 이 두 곳도 처음에는 깃발을 높이 달고 堂堂하게 出發을 했읍니다만, 中間에 複雜한 內容으로 말미암아 요사이 新譜 作品

을 發行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므로 수요에서 빠졌읍니다.

◇무릇이 六個 會社에서 每月 流行歌, 劇, 民謠, 舊謠, 소프래스, 테너어盤을 合하여 平均 十種 內外에 平均 二萬張 內外가 每月 팔리는 셈입니다. 그러면 一個月 都合 十二萬張, 一年이면 百五十萬張 가량의 레코오드를 朝鮮 社會에 供給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코오드는 그 性質로 보아 映畫나 演劇과 같이 一次의 料 金を 내이면 한사람만 보고 마는것이 아니고, 一張을 사면 한 團體나 한 家族이 듣게 되며, 또 時間的으로 얼마든지 오래 두고서 이 사람 처 사람이 듣게 되므로, 레코오드 一張을 가령 열사람씩이 듣는다 하면, 一年에 一千 五百萬사람의 레코오드 聽取者가 있게 됩니다.

◇이 尨대한 數字에는 누구든지 놀랄 일이 어니와, 이것이 만일 聽取者에게 害毒을 준다면 可驚할 일이 안될수 없으며, 만일 有益을 준다면 文藝作品, 映畫, 演劇等 무엇보다도 큰 效果를 내리라 믿읍니다. 더욱이 레코오드를 聽取하게 되는 그 當時의 零團氣를 생 각해볼 때에 한 曲調 좋은 멜로디와 한마디 힘찬 부르짖음이 가장 조용하고 가장 힘있게 들는 사람의 心 琴을 울리게 되는 時間과 零團氣를 알게 될지니, 얼마나 값있게 端的 效果를 내이게 될것입니까.

◇ 그리하여 요사이 識者階級에서 조선말 레코오드를 餘地없이 唾罵를 하는것을 볼 때에 그 생각의 못미침을 恨하는바이니, 要言건대 레코오드도 文明的 利器에 하나라 하면, 이러한 좋은 利器가 조선 사람에게 適合되는것을 왜 나무라겠읍니까. 오직 레코오드 製作 當事者에게 그 허물이 있을지언정, 레코오드 그 물건이야 우리가 家庭마다 갖지 못함을 恨歎할뿐이라고 봅니다. 그리하여 여기에는 오직 社會의 끊임없는 指導와 鞭撻과 批判을 必要하는것인데, 輓近 朝鮮의 言論機關에서 레코오드에 對하여 置之度外함이 큰것을 보고다 시 影響되는바 結果를 생각하여 몹서리 치는바가 많았읍니다.

◇ 그러나 現在の 조선말 레코오드가 低級되다 함은 레코오드 購買層의 레벨이 그만큼 낮다 함을 表明하는것인데, 레코오드가 언케나 大衆의 低級 趣味만 迎合하고 大衆의 質的 向上이 있을 때까지 健全한 레코오드의 生産을 保留한다면 그것도 또한 큰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悲壯한 勇斷이 必要했읍니다. 犧牲을 覺悟하고 珠盤을 뒤어넘어서 좀더 큰 利益을 도모하며, 좀더 넓은 앞길을 開拓하기 爲하여 大衆의 要求보다 한걸음 앞서나가 大衆의 質的 向上을 꾀하는 길이 있을뿐입니다.

◇ 이러한 試金石의 하나가 이번에 새로 製作된 朝

鮮語教育 레코오드일가 합니다。流行歌의 甘美하고 哀傷的이고 遊蕩的인 멜로디와 년첸스, 스킷취의 유모어함이 많은 購買層에 向하여 불어불란듯한 教科書 吹入 레코오드를 보냄이 어찌 容易한 일이 되겠읍니까。

◇ 그리하여 吹入 計劃이 確定되고 吹入 製作에 當事해 주실 여러분 先生과 여러분 兒童들이 決定된 후에도 얼마동안 躊躇했다는것을 自白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그리고 雪上加霜으로 難關에 難關은 다른 레코오드 製作보다 몇배 以上이 될 때 啞然하였읍니다。

첫째 吹入難입니다。이번에 새로 製作하게 된 教育 레코오드의 吹入 材料가 普通學校 朝鮮語讀本인만큼, 吹入者를 現在 普通學校 在學中인 어린 兒童中에서 選拔하게 되었는데, 어른과도 달라 數十名의 小學生 兒童들을 東京이나 大阪 있는 吹入所로 데려갈수 없고, 東京이나 大阪 吹入所에 있는 吹入機械를 朝鮮으로 運搬해오려니, 이만커만한 큰일이 아니었읍니다. 그리고 또 하루 이틀에 吹入이 끝날것이 아니므로, 吹入 時日은 반듯이 休暇中을 利用하여야 되었읍니다. 그리고 吹入 함에 있어서는 한자 한마디의 錯誤와 毫末의 遺憾이 있어도, 模範讀法이나 模範唱法을 示唆함에 있어 失敗이므로, 數十回의 矯正 吹入이 있더라도 完全無缺을 期하여야 되었읍니다。

둘째 採算難입니다。무릇 今番 第一回 吹入製作原

盤 三十張 加량 吹入에 있어 無慮 數百張의 原盤이 必要했으니、이 費用만 가지고도 現在 朝鮮에서 레코 오드가 불어들이는 돈으로는 採算이 안되는대다가 吹入機械 運搬 其他 製作費 人件費가 다시 數千圓의豫算이 必要했습니다。吹入 觀察 監督先生 伴奏員 其他 特別效果를 加하기 爲하야 招聘한 特殊技術者까지 百二三十名의 人員을 動員했으니、아직까지 한가지 레코오드를 製作함에 있어 이러한 尨대한 人員을 움직인 일이 없었습니다。가령 人件費가 많이 나게 되는 한 예를 들자면、普通學校 朝鮮語讀本 五卷中 沈淸傳을 吹入하는데、그 伴奏을 沈淸傳 唱劇調의 大琴을 使用하게 되었읍니다。그런데 唱劇調 大琴 名手로는 朝鮮에서 朴鍾基氏라는이로 그 첫손가락을 꼽으니、이분은 大琴을 四十年間 공부해오신분입니다。그런데 이분의 사는 곳이 朝鮮의 한끝 南海中에 있는 珍島였으니、그 곳에서 招聘해오지 않으면 안되었읍니다。이렇게 夥多한 費用이 들고는 傑作中 傑作이라는 소리를 듣는 流行歌나 던센스盤으로도 彩算이 안될것을 試試驗인 敎育 레코오드로는 그 彩算을 두말없이 超越하야 되었읍니다。

첫재 許可難입니다。이러니커려니해도 朝鮮總督府의 版權所有인 敎科書를 民間會社의 吹入 發賣에 許함은 아직 前例가 없던 일입니다。그러므로 當局에서 도 慎重

에 慎重을 거듭하였읍니다만、製作者의 純然한 目的에 贊同하게 되어 快히 許可를 받게 되었읍니다。그리하여 이 許可의 難關만은 容易하게 解決되었읍니다。

◇이러한 모든 難關과 차우며、汗蒸하는것보다 더한 三伏中 여름날 除音裝置 무거운 吹入室에서 숨소리조차 크게 못쉬고 誠과 熱과 血의 結晶으로 된 이 레코오드 十二張 一組를 이번 十二月 五日을 期하야 오케 新年 特別 新譜라는 이름 아래 江湖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차움을 마치고 땀을 씻고 일어서서 숨을 크게 쉬는 대견한 마음으로 戰鬪한 經過를 생각할 때、오직 感激스러움이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처음으로 좋고 몇몇한 일을 한것 같아서 겪어온 難關의 가지가지도 이케는 기쁨의 回想뿐이외다。더욱 이 敎育 레코오드 發賣의 消息이 江湖에 나감에 빛날같은 激勵과 聲援의 글발이 社會 諸賢으로 부터 每日 數十通을 나리시 양게 받게 됨에、앞으로 한층 더 勤勤孜孜하야 敎育 레코오드의 製作을 繼續하야 朝鮮의 現下 焦眉 運動인 語文敎育 運動에 한구름이나마 寄與함이 있도록 힘쓰고、學校와 家庭에 있어 兒童敎育의 좋은 師友를 提供하며、第二世國民인 兒童의 情緒敎養을 引受하는 外에 家族團欒에 없지 못할 備品을 提供하고저 합니다。

◇이에 朝鮮語敎育 레코오드 吹入 製作에 對하야 製作

會社의 立場으로

吹入 材料 選編과 音聲 指導를 맡아주신

延禧專門學校의 鄭寅 燮氏

吹入 兒童 監督과 讀法 指導를 맡아주신

京城女子師範學校의 沈宜 麟氏

作曲과 音樂 指導 맡아주신

朝鮮音樂教育協會의 李鍾 泰氏

의 諸 權威와 및 이를 吹入하여주신

京城師範學校附屬普通學校 兒童

京城女子師範學校 生徒

의 수고를 衷心으로 感謝하며, 또 이번 吹入 當時에

이를 獎勵하는 뜻으로 일부터 吹入所까지 來臨하신 各

方面 人士 特히 朝鮮語學會의 李熙昇氏와 이러한 레

코오드의 製作을 計劃하도록 힘써주신 警務局의 王熙

弼氏에게 感謝함을 말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朝鮮語學會와 朝鮮音聲學會와 朝鮮音樂教育協

會와 朝鮮音樂家協會等 여러 機關의 推薦의 許를 얻

어, 新年 特別 新譜로 하여 發賣하게 되었습니다.

◇이 朝鮮語教育 레코오드는 十一張 一組로 그目錄

은 아래와 같습니다.

第一學年用 朝鮮語讀本 卷一

第一課로 第十課 【바른 讀法과 틀린 讀法】

(처음에 바른 讀法과 틀린 讀法의 例를 보이고, 先

生에게 따라서 兒童이 읽음)

第十七課와 第四十二課 【반질】

(처음은 先生에게 따라서 兒童이 읽고, 다음에 兒童

혼자서 읽음)

第三十九課 【해(아침해)】

(처음에 한번 읽히고, 다음에 노래를 鑑賞하게 함)

李鍾泰氏 作曲)

第四十課 【아버지와 아들】

(처음에 先生에게 따라서 兒童이 읽고, 다음에 兒童

혼자서 읽음)

第四十五課 【코끼리】

(趣味的 敎材로 보아 바른 讀法을 보이는 同時, 對

話的 趣味를 느끼게 함)

第五十三課 【비 (李鍾泰氏 作曲)】

(먼저 읽히고, 다음에 노래하게 하여 實感을 吟味시킴)

第二學年用 朝鮮語讀本 卷二

第一課 【봄 (李鍾泰氏 作曲)】

(讀法의 部分은 읽히고, 노래의 部分은 노래시킴)

第十六課 【무지개 (李鍾泰氏 作曲)】

(먼저 읽히고, 다음에 노래하게 함)

第二十六課 【물방아 (總督府 曲)】

(먼저 읽히고, 다음에 노래하게 함)

第二十九課 【산울림】

(바른) 讀法과 同時에 對話的 趣味를 살리기 爲하
야 場面の 適應한 效果를 加함——스윙음 名曲 挿入)

第三十一課 【韓石峯】

(바른) 讀法을 指導하야 兒童으로 하여금 吟誦)

第三學年用 朝鮮語讀本 卷三

第五課 【朴赫居世】

(對話體로) 吟히며, 新羅時代의 宮中雅樂을 伴奏함)

第十四課 【공】

(對話體로) 吟히어, 飛行機의 푸르페라의 소리를 效果

로 넣음)

第十五課 【달아달아(在來曲)】

(먼저) 吟히고, 다음에 노래시킴)

第十九課 【자장가 (李鍾泰氏 作曲)】

(먼저) 吟히고, 다음에 노래시킴)

第四課 【꽃요】

第二十三課 【김심방】

(바른) 發音을 보이고, 美文 朗讀에 있어 句讀 句讀

點等을 보임)

第四學年用 朝鮮語讀本 卷四

第八課 【흥 떼 이야기】 上

同 【同】 下

(趣味教材로 보아 노래 場面이라든지 鬼神의 撓動
場面等은 適當한 效果를 넣어 實感을 내이게 함)

第一課 【아침 바다 (李鍾泰氏 作曲)】

(먼저) 朗讀시키고, 다음에 노래하게 함) (물결의 效果)

第二十八課 【扶餘 (李鍾泰氏 作曲)】

(먼저) 朗讀시키고, 다음에 노래시킴)

第五學年用 朝鮮語讀本 卷五

第九課 【漁夫歌】

(朗讀시키고 「불가의 밧노래」의 名曲을 伴奏하야 名

曲을 吟味시킴)

第十二課 【諺文의 制定】

(朗讀시키고, 李王職雅樂을 伴奏함)

第二十一課 【沈淸】 上

同 【同】 下

(對話體로) 吟히고, 唱劇調 沈淸歌를 大琴으로 伴奏함)

第六學年用 朝鮮語讀本 卷六

第二課 【時調 五首】

(朗讀을) 시키고, 時調의 在來曲을 古樂器로 伴奏함)

第六課 【孔子와 孟子】

(朗讀시켜) 바른 讀法의 標準을 보임)

第九課 【詩話 二篇】

(朗讀을) 시키고, 「엘레지」 悲曲을 伴奏하야 名曲을

吟味시킴)

第二十二課 【途上의 一家】

(朗讀을) 主로하야 「詩人과 農夫」의 名曲을 伴奏함)

뛰어쓰기꾸아리깨의 生命이다

李 錫 麟

요사이 오고가는 편지라든지 그 밖
에 글쓰는것을 보면 통일안에 쫓아
쓰려고 힘을 쓰며, 또 쓰고 가르치
는이가 많아간다. 이는 우리 겨레의
함께 기뻐할 일이라 아니할수 없다.
그러나 통일안 체결장인 뛰어쓰
기를 관심하고 실행하는이나 가르치
는이가 드문것 같다. 도외시하는것
같다. 관심하는이가 없다 하여도 지
나친 말이 아닐만큼 무관심함은 참
심심한 사실이다. 보기를 들면, 「우
리글을 쓸 때에 마춤법 통일안에
쫓아 쓰이 마땅합니다」로 쉼야 읽
기가 쉬울것을 「우리글을쓸때에마춤
법통일안에쫓아쓰이마땅합니다」로 줄
대어 써서 읽기에 여간 거부하지 않
다. 마땅히우의것과 같이 또박또박

뛰어쳐 독서 능률(讀書能率)의 증진
문제(增進問題)를 케일 중대한 착안
점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삼국지 수호지들의 총총이 박아놓
은 구소설 책들을 읽어본이는 다 알
줄 안다. 글자를 슬쩍 읽어보아서는
그 뜻을 알아볼수가 없고, 종이
뚫어지도록 눈경신을 들어어 들여다
보고 줄대어 읽은 뒤에야 비로소 무
슨 소리인것을 깨닫고, 또 읽다가
옆의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다가 다
시 읽으려면 읽던 줄의우에서 다
시 읽어내려와야 찾고, 그렇지 않으
면 얼도당도 않은 판 줄이나 판대를
읽게 되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
진커리가 나도록 읽기가 힘들고 쓸
대없이 정력이 많이 들지않는가?
이는 「스스기」고 흥들의 바침을
쓰지 않음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뛰어박지 않음에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어학회의 「한글」과 같이 붓으
로 쓸 때에서 또박또박 뛰어 쓰자
는 말이다. 전에 안 쓰던 바침을

뛰어쳐 날뫓뫓날뫓들로 달리 쓰기때
문에 문법이 정연하게 정리됨은 불
론 글읽는데 얼마나 편리한가. 친
애 안 쓰던 바침을 써서 읽기가
쉬운대다가 뛰어쓰기를 꼭 실행한
다면 뜻글인 한자(漢字)와 견주어
글읽는데 과히 손색이 없을줄안다.
이로보면 보통학교 개칭 조선어독
본의 결함이 표음적 표기법이 철켜
흥지 못하고 흥바침들을 쓰지 않음
에도 있겠지만, 그중에도 뛰어박기
를 철켜히 실행하지 않음은 여간
큰 힘이 아니다. 유감도 천만이다.
보기를 들면(卷二 第八二頁)
어느날, 닭한마리가 집뒤감
나무에 올라앉아, 따듯한 봄
별을 담뱃쪼이면서, 커흔차
잘하는듯이, 노래를부르고
잇섯습니다. 때마침여우
한마리가 그 밑으로 지나가
다가...
로 글자와 글자 사이가 너무 떨어져
쳐서, 눈으로 보는데 동안이 많이

걸리고, 게다가 웃말과 아랫말에
띄어 박지를 얹아 총총이 박은 구
소설책보다 별로 읽기 편리할것 같
지 않다. 낱말의 글자와 글자를 알
아볼수 있는 정도이면 될수있는대로
붙이어 쓰고 그리고 띄어 쓰자는것
이다.

어느날 닭 한마리가 집 뒤 감
나무에 올라앉아, 따뜻한 봄볕을
담뱃 쪼이면서 커 혼자 잘하는
듯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때 마침 여우 한마리가 그 밑
으로 지나가다가……

와 같이 교과서도 또박또박 띄어
박았으면 하며, 붓으로 쓸 때에도
또박또박 띄어 쓰자는 말이다. 우리는
「한글」과 같이 이룬보다 실케로 꼭
실행하자. 「한글」을 띄어 박지 않고
총총이 박는다면 읽기가 어떻겠는가.
우리 글자가 단음단위철(單音單位
綴)이니만큼 줄대어 쓰여지기가 쉬
운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조그만
수고를 아낄것인가? 아니다. 어렵고

힘드는것이 아니다. 다만 열성 여하
다. 붓을 들면 띄어 써서 버릇들이
어 글쓰면 의례이 띄어 쓰도록 주
의 명심하여 아주 습관이 되도록 힘쓰
자.

아! 사랑하는 배달 저레여! 버
릇들이기는 한때의 열성과 평소의 주
의 여하요, 쓰고 보기는 열성이 아
닌가. 아직 새 맞춤법은 몰라서 못
쓰는이라도 첫걸음으로 띄어 쓰기
부러만이라고 일케히 실행하기를 바
란다. 우리글을 살리고 죽이는것은
띄어 쓰기 여하에 있다고 믿어 의
심중지 않는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
글을 볼론하고 다 마찬가지다.

거듭 말하지만, 낱말의 글자와 글자
를 알아볼수 있는 정도이면 될수있
는대로 붙이어 한덩이가 되게 하고,
토는 웃 말에 붙이어 쓰고, 띄어 쓰
기를 바라면 「한글」을 사월호 첫베
지의 「풀밭」과 같이 써서는 아니되
겠다는것을 붙이어 말한다.
보통학교 조천어독본이 일편을 케

하고는 전부 철켜히 띄어 박지를
얹고, 더구나 선생 된이로 이에 덧붙
는이 드물다. 이는 필자가 재학 때
친히 경험한바며, 학교 아이들의 필
기함을 보든지 「한글」에 연재되는 조
천어독본의 지도례에도 경청사범학교
심선생이 분별서법(分別書法) 즉 띄
어 쓰기에 덧붙는것을 볼뿐. 그외에
는 보기 어렵다. 이것으로서 권조천
대다수 교원의 조천어 교수에 대한
태도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겠다.
학교 교과서가 통일안에 좃고, 띄
어 쓰기를 철켜히 실행함은 물론,
아이들 쓰는 공책도 간친것은 쓰지
못하게 하였으면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 배우는 아이들에게 간친
것이 얼마쯤은 편리하다고 하겠지
만, 율을 쓰면 간마다 글자가 들
어가게 되니까.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 백
이 노던 달아」
와 같이, 글자와 글자의 거리가 멀
리 되어 읽기가 여간 거북하지 않

다. 그러므로 간친것은 쓰지 못하게 하고, 어려서부터 조리 있게 되어 쓰게 가르쳤으면 더욱 효과가 있을것 같다. 학교에서나 어디서를 불문하고 우리글을 가르칠 때 신철자에도 유의함은 불문이겠지만, 무엇보다도 띄어 쓰기가 우리글의 생명으로 알고 스스로 실행하고 철저히 실행이 되도록 지도하기를 바란다. 남이 보고 한글 독자가 쓴것이고 가르친것이구나 반복할만치 꼭 실행하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글을 친히 여기고 반대하던이들도 우리들을 따라 완전히 통일될 날이 멀지 않아 있을줄 안다. 그리고 더욱 빛날것이다.

끝으로 조선어학회 선배 여러분에게 한 말하노니, 조선에서 우리글과 말을 연구하는 오직 하나인 기관이요, 그 기관지인 이천만 저레를 인도하는 「한글」이요, 게다가도 첫째 첫달호의 첫페이지(三卷, 第一號)에 띄어 박지 않았다는것은 참 유감이다. 여러 선생이시어, 우리 저레는 누구를

무엇을 믿고 바라고 본떠가란 말인가? 「한해」를 지내고 「들」의 글자를 죽 늘어놓았다고 할수 있지, 월이라고 할수 있을가? 이후 이런 일이 두번 없기를 비오며, 이번에 예수교 신구약성경전서를 통일안으로도 고친다는대 대하여 꼭 철저히 띄어 박도록 함을 바란다. 예를 들면,
 一、(찬송가 제 일백 삼십 육장)
 「깃본일잇서던당종치네
 먼디죄인도라왔도다
 부친외서길에마조나가지
 일흔자식도로차첫네」

二、(찬송가 제 일백 칠십 삼장)
 「이세상도편함이잇는가
 구주의피로마음이편안해」

一、「기쁜 일이 있어 찬당중 치네
 먼대 죄인 돌아왔도다.
 부친께서 길에 마주 나가서
 잃은 자식 도루 찾았네。」
 二、「이 세상도 편함이 있는가?
 구주의 피로 마음이 편안해!」
 와 같이, 바침들만 통일안대로 힘쓰

지 말고, 띄어 박기까지 꼭 실행되도록 지도하여 주심을 찬만 바란다. 그컨보다 읽기가 편리하여야 일반의 지지가 있을것으로 믿으므로써이다. 이는 필자가 말하지 않아도 다 잘 지도할것으로 믿지만, 우리글을 완전히 만들 마음이 여러 선생보다 덜함이 없는 필자로서 거저 있을수 없어 쓸대없는 붓임을 알면서도, 쓸대없음을 무릅쓰고 두어자 적고, 이만 붓을 던진다.

조선어학회

월례회

이달 이십삼일 오후 삼시에 서울 화동 一·二九번지 조선어학회 회관에 서 월례회를 열고, 안재홍(安在鴻)씨의 「자매어의 관계」란 연재로 장면이 있었다.

소신

이만규씨 고양군 연희면 창천리 (滄川里) 九六三번지로 이사하였다.

로빈슨 절도 표류기 (完)

이곳에 이십일간 체류한 뒤에 떠나가는데, 가지고 온 물건은 다 주어버리고, 또 일꾼들도 떨어트려주고, 또 뿌리썰에 가서 남녀 수인과 다른 불화는 보내주마 하고 작별하였습니다.

그리하고 배를 띄워 뿌리썰을 향하고 가더니, 종로에 삼십여인이 탄 외나무배를 만나 큰 고생을 하였읍니다. 그들이 우리 배를 향하여 오기로, 후 무슨 일이 있어도 하여 발포할 준비를 시키고 더 가깝게 가서 보주, 천부터 보던 사람들이라, 이에 금요일이를 그 배에 보내어 저희들 말로 이야기하게 하였더니, 얼마 있다가 금요일이 토인 두어명을 데리고 오더니, 우리들에게

「할일을 쏘오리라」 하고 이 소리가 마쳐 마추기 전에 토인들이 연방 활을 쏘아 금요일이

그만 흐트는 살에 맞은바가 되어 죽어버렸읍니다.

이에 우리들이 즉시 발포하기를 시작하여 얼마아니하여 그자들을 물리치고, 인하여 관을 만들어, 금요일이를 수시(收屍)한 후에 수장(水葬)하니,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다정하던 금요일이는 그만 이 세상에서 그림자를 내놓을수 없는지라, 점점 슬픈 마음이 이두 측량하기 어려우므로, 쓸대없으나마 조상하는 것을 표하기 위하여 조포를 놓아주었습니다.

뿌리썰에 도달한 뒤에 즉시 약정한대로 사람과 물건을 그 섬에 보내주고, 조카는 경영하는바 동인도와 밋 지나 무역을 볼차로 떠나니, 그역 관제치 아니할듯하다 하여 따라가기로 합니다.

우리들은 뿌리썰에서 직도로 희망봉(아프리카 남쪽 끝)을 향하여 태평양을 횡단하여 거기서 불건을 실고 마다까스카(아프리카 동해상에

있는 큰 섬)로 갔읍니다.

거기 가서 우리들이 잠시 상륙하였더니, 선인중에 불량한 놈이 있어 토인의 여편네를 욕보인 일이 있어, 토인들이 노하여 그놈을 죽여 호수(梟首)한지라. 다른 선인들이 이 과도한 형벌을 보고 또한 노하여, 바른 마음은 다 버리고 손에 건하는 대로 모든것을 다 깨뜨리고 촌가에 불을 놓아 일이 갈수록 엉키어 갈듯한고로 우리들은 목숨을 움키어주고 배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 선인들의 한일이 옳지 못하게 생각하므로 단단한 말로 경계한즉, 도리어 선인들이 칭내어 더욱 일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수부장(水夫長)이 수부들을 선동하여 나를 배 밖으로 방축하려 한지라. 내가 커녕때 잠시 하륙하였다가, 수부장의 명령이라고 죽기를 한하고 래우지 않더니, 마침조카 곧 선장이 하륙할양으로 오기로, 내가 하륙 후 지낸 일을 말하였읍니다. 그리

한즉 또 거기 수부장도 하류하여 와서 나를 배에 태우면 친인 친척가 동맹과업하겠다고 신장에게 담판하니, 조카가 일이 매우 얼른 해결되지 못할줄이나 달리하는수없어 망사리는 모양이라, 내가 조카더러 「그러면 나 혼자 여기 있을터이니, 너희들이나 다녀오니라」 한즉, 조카는

「그러나 아저씨를 두고 간즉 내도 리가 어기어진즉」 하는것을 억지로 그리하게 만들고, 나의 가진 물건과 돈을 가져다놓고 언케든지 기회를 타 내 나라로 가리라하고 헤어지기로 하였읍니다.

조카는 내 결심을 듣고 놀랐으나 달리 좋은 도리도 없으므로, 또한 그리하기로 하고 친인을 모아놓고 이런말을 일러 다 사무를 잡게 하였읍니다.

일이 이렇게되어 나는 권에 있던 신로보다 더 떨어진 곳에 혼자 있게 된고로, 내 생각에는 좋은 배편

을 만나 피시아만으로 건너가 대상을 들도 더부러 함께 아라비아 대사막을 횡단하여 그곳으로서 배로 이탈리아국으로 건너가서 프랑쓰국을 지나 다시 배로 본국으로 돌아갈가 하였더니, 불행중다행으로 조카가 갈 때에 하인 하나와 심부름할 사람을 하나를 두고, 간고로, 삼인이 작반하여 우리나라 사람의 객주에 들어가 구개월동안 그곳에 체재하였읍니다.

이 객주에는 우리외에 다른우리나라 사람과 프랑쓰국 사람과 이탈리아 사람과 기타 여러군데 사람이 가지 있더니, 어느날 우리나라 장사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먼곳에서 같은 객주에 가지 체재함도 여간 인연이 아니니, 한번 들이 자본을 합하여 배를 업어가지고, 노형은 신장이 되고, 나는 상고가 되어, 지나(支那) 방면으로 무역하려 가보지 아니하시려오」 하고 연방 권하는데, 그 말을 들어 본즉, 또한 그럴듯하기로 나는 또

한 마음에 당기어 곧 약조를 청하였읍니다.

그러나 언어도 친인을 얻는수 없으므로, 이에 수부장(水夫長)과 발포군(發砲軍)은 우리 나라 사람으로 하고, 그외는 다 토인으로 일시키고 용하여, 지나를 바라고 떠났읍니다.

이후 수개월간은 매우 일없이 지내어 뺑갈에서 스마트라도 가시 다 시 시암으로 와서, 또 다시 뺑갈로 돌아와서, 마닐라 마라코 캄보자 등 킹 지나 등지로 다녔읍니다.

지나해안을 다닐 때 해운 수로도 잘하거니와, 해군에 관한 일도 매우 밝고, 또 그 성질도 매우 온화하고 사령도 매우 공교한 재미있고 훌륭한 사람인고로, 우리들이 지나에 하류하여 물건을 다 관 뒤에 선착까지 팔고 낙타대상(駱駝隊商)으로 더부러 아시아대륙을 횡단하려할 때에도 데리고 가기로 하여 이 일을 그 노인에게 말한즉, 그도 또한 매

우 좋아하여 우리들과 함께 세계를 주유하겠다 하므로, 피차 작정하였읍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대상으로 더 부러 작반하려하면 아직 덕달이나 남은고로 그동안에 남경에 가서 차와 주숙을 많이 사서 낙타와 말이 십 육필에 실어가지고 돌아왔읍니다.

함께 가는 대상(隊商)은 모두 일백이십여인이요, 짐실은 낙타와 말이 삼사백필이나 되는데, 중로에서 혹 달단(韃靼)인에게 엄습을 받지 않을지도 몰라 각기 총검을 가졌읍니다. 이중에 육십인 가량은 상인이니 모스크바에 사는 사람이요, 또 이 상업에 노숙한 스코틀랜드 사람 다섯이 있는데, 더욱 동고향한 까닭으로 이 사람들을 형제같이 생각하였읍니다.

어느날은 지로군 오인이 우리들을 어느 공회당의 모퉁이에, 여기서 각기 먹을 것과 마필을 사고, 그러한 뒤에 원 대상 친척을 군대적으로 부

분하고 지로군으로 대장을 삼아 일체 그 명령에 복종하기로 청하니, 이는 토인들에게 엄습될 때에 이렇지 아니하면 매우 불편할 줄로 생각함이외다.

이리하여가지고 떠나가더니, 도중에서 풀추잡 사람 하나가 날터러 「너 노형제 다른대서는 구경 못 하실것을 하나 보시게 하오리까」 하므로, 무슨 일인지 몰라,

「무엇이오」
「한즉,

「무엇 별것은 아니오, 지나 양반의 집이오」

「그것 좋지요」

「네, 그럼 그리합시다. 한집안 식구가 한 삼십인 되지오」

하고, 어느 집으로 인도하기에 따라 가본즉, 원통 나무에 각색 칠을 얹친하게 칠하고 또 꾸미기도 잘하였는데, 또 좋은 보료를 죽 깔아, 참 굉장하고 화려한데, 나는 이 기이한 지나인의 풍습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일간 이곳에 체재하였읍니다.

마침 이때에 목수 한사람이 배한 칩을 명조하는데, 낙성되는대로 일본을 향하여 간다 하므로, 내가 이 말을 듣고 한번 유람할 생각이 없지 아니하나, 가만히 조사하여본즉, 나를 속이는 일이 많으므로 급시에 싫은 생각이 나서 그만두고 헤어졌읍니다.

그뒤 유명한 만리장성을 보고, 그 공역의 거대하였을것을 생각하여보고 하품하였는데, 지로군의 말을 들은즉, 그길이 참 일천마일이라 하며, 아이 외에도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대로는 다 주침주침 구경하면서 갔읍니다. 지로군의 엄청나게 보래는 실명을 들으면서, 또 얼마 간즉, 커기커 달단인이 습래하는것이 보이므로, 우리들은 서로 조심하여 부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갔읍니다. 필경에 가깝게 닥드러본즉, 아무 질서도 없고 아무 통어도 없으므로, 이것같으면 겁낼 것이 없다 하여, 매우 마음을 놓았

으며, 또 무슨 까닭으로 지나 청부가 가끔 이따위 질서없는 무리에게 욕을 당하는고 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였읍니다.

우리들이 달단인을 보고 동기한족, 지도군의 심륙인을 뽑아내어 별대를 만들어, 그자들을 방비하였읍니다. 또 조금 간죽, 근 사십인 되는 달단인들의 양을 치고 있는데, 그네들은 우리가 오는것을 모른다가 가깝게 이른 뒤에 알고서 무엇무엇이라고 속살속살하더니만, 금시에 많은 도당을 소취(嘯聚)하고, 우리들이 지나갈 때에 뒤에서 활을 쏩니다. 그러나 대행이 우리들은 별도 상하지 아니하였읍니다.

이에 우리들도 적대할수 밖에 없으므로, 그들에게 총을 놓으려, 그들의 편의 맞아죽는것을 보고는 다 각산분주함이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들은 이 때에 러시아국서 한 팔천리 가량 떨어진 곳을 지나서, 혹은 배를 건너

고 혹은 사막을 횡단하여, 사월 십삼일에 마스코빠이트 속지까지 오니, 이곳은 세계에서 제일 치운 곳인데, 지나해에서 팔천리, 발트해에서 일만 이천리, 인도에서 이만리, 북극에서 삼만 이천리 되는 곳입니다.

또 우리들은 알가나강으로 지나가서 여러 키자와 성락을 지나, 러시아국 땅으로 들어가니, 이곳사람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일월성신등을 신봉하는데, 매우 우습게 보입니다.

이러한 곳을 이십일이나 가서 어느 곳에는 들어간즉, 나무도 인형을 만들고, 거기에는 양피로 만든 옷을 입히고, 또 얼굴에는 이상스러운 칠을 하였는데, 가깝게 가서 본즉, 토인 십 오륙명이 땅에 가엾드렸는고로, 무엇을 하노하여 마치 목석 모양으로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하더니, 조금 더 가깝게 간즉, 그들이 몸을 일으켜, 마치 개 짖는 소리를 하면서, 우리가 옆에 있는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는것처럼 어디로 가버림이다.

그 옆에 집하나가 있기로 거기를 가서 본즉, 양과 소의 껍질이 많이 깔려놓였고, 그 옆에는 사람 셋의 찬칼을 들고 섰고, 또 가만히 본즉, 그 사람의 곁에는 잡은 양 열 셋뿐이 놓였는지라, 이것은 아마 아까 무상에 드린 지칭물이요, 사람은 기도를 드리는중인듯 함이다.

얼마 서서 구경하다가, 우리들은 다시 목상 있는대 가서, 칼을 빼어 목상에 입힌 양피옷을 비어보았더니, 토인들이 크게 노하여 삼백명 가량이나 모여들어, 우리를 향하여 활을 쏘는고로 대적하는수 없어, 한번 도와서 원수를 갚으리라고 도피하였읍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한 십리 남짓하게 떨어진 곳에서 세밤을 지내고, 그 소코틀랜드 사람과 상인 몇을 피여 가만히 토인의 촌에 가서 송진을 목상의 몸에 원통 바르고 눈과

귀와 코에 다 화약을 집어넣고, 모 자에는 용을 붓삼아매고 타지 아니 할듯한것은 다 치우고 거기다 불을 질렀읍니다.

그리하였더니, 이른날 아침에 많은 사람이 우리가 두류하는 촌 근처에 왔단 말을 듣고, 내가 일어나 본즉, 달단인들이 모도였는데, 커의들이 승경하는 목상을 불놓은 까닭으로 러시아 정부에 질문까지 위함이라 합디다.

이로하여 촌중이 크게 소란하여 「달단인」이 삼천이 몰려왔다」

「러시아 정부에서는 어찌하려느고」 하여 어찌할줄 모르더니, 러시아 정부에서는 그들의 노를 풀기 위하여 사신을 보내어 이런 일이 일어남을 조금도 몰랐다고 변명하엿읍니다. 우리들은 코식병의 호위를 세우고 이곳을 떠났읍니다.

그후 칠개월간을 여행하고, 우리들이 시베리아성의 수부도볼쑥부에 이르니, 이때는 마침 청동이라 일망

무척한 곳에 눈 아니면 얼음인데, 산과 물과 골과 언덕이 다 겹겹이 얼어 그 면이 돌과 같읍니다.

모스크바부에도 잠간 가고싶었으나, 우리들은 잉글랜드로 돌아가는고로 그만두고, 직도로 「발틱」으로나 아찬셀로 가려하였으나, 또한 눈 때문에 할수없이 마음에는 없으나, 명준까지 시베리아에 있기로 하였읍니다.

이곳 기호는 우리나라와 매우들러서 칩기 한량 없으므로, 나는 두꺼운 옷을 여러벌 겹쳐 입고 주야 방중에 불을 피고 있으며, 이동안에 러시아의 양반들과 상중하여 매우 재미 있게 지냈읍니다.

이곳에서 여덟달을 지내고, 이듬해 오월에 출발할 준비를 하는데, 그때에 내게 근사하던 노인의 연해나도 데리고 가달라 하므로, 또그다지 바라는것을 그쳐 떼치는수 없이 그때는 노인이니 그만두고, 그때의

아들이나 데리고 다니마 하고, 그 아들들 데리고 도볼쑥에서 떠났읍니다. 노상에서도 여기저기서 초대함을

입어 유쾌하게 다니다가, 엘베(또이 취국의 강)로 가서, 거기서 나와 그 노인의 아들이 다 함께 가지고간 불화를 팔고, 돈을 많이 모았는데, 그 사람은 거기를 작별하고나 혼자 떠날 뒤에 「힘부르흐」도이취 유명한 도회(로) 가서 일천 칠백오년 일월 십일에 킨턴으로 돌아오니 두번째 킨턴을 떠난지 꼭 십년 구개월 반입니다.

나는 지금 나이 칠십이세인데, 그만 다시는 내 몸을 괴롭게 아니하기로 하고, 오랜동안 항상 탈없도록 돌아보아주신 하느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또 내 평생에 지내본 여행보담 더 영원한 커 평생 길을 닦으면서 날을 보내노이다.

(끝)

제四八九회

한글날 기념식

○기념식

지난 시월 이십팔일은 제 사백 팔십 구 회의 한글날이므로, 조선어학회 주최로 서울 동의동 명월관에서 기념 축하회를 열었다. 당일 오후 칠시부터 각 사회 유지 백명의 집합으로 장엄하게 식을 거행할새, 사회이 회승(李熙昇)씨의 식사가 끝난 뒤에 일동이 기립하여 장지영(張志映)씨의 훈민정음(서문만) 봉독과, 이만규(李萬圭)씨의 기념사가 있었고, 이어서 최규동(崔奎東), 안재홍(安在鴻), 김희상(金熙祥), 임영신(任永信) 제씨의 뜻이 깊은 축사가 있었으며, 방중현(方鍾鉉)씨가 일년간 한글 운동에 관한 상황을 보고하고, 이윤재(李允宰)씨가 축전과 축사를 낭독한 후, 일동이 기립하여, 사회의 발성으로 「만세」를 삼창하다. 식은 이로써 마치고, 이어서 정인섭(鄭寅燮)씨가 조선어 교육 데코오드 제작한 취지를 설명한 후, 일본오케축음기상회 경성지점 문예부장 금릉인(金陵人)의 지도로 조선어 교육

데코오드를 시청(試聽)하고, 송기주(宋基柱)씨의 지도로 한글 타입우라이터 사용법을 참관하고, 일동은 식탁으로 옮기어 만찬을 마치고, 동구시에 흠여갔다.

○축사 보낸이

이번 기념식에 축사를 보낸이는 다음과 같다.

축전—목포 최기룡 ▲장연 송주성 ▲김청정열모

편지—벽동 김시언 ▲신설리 이석린 ▲벽

동 장지용 ▲함평 이강수 ▲태인 김

진석 ▲고원읍 천일수 ▲고원읍 박학

신 ▲송화읍 이용진 ▲철산 봉암생

▲고원읍 윤원봉 ▲춘천읍 신영철

○기념 방송

경성방송국(京城放送局)에서는 한글날 저녁 일곱시에 조선어학회 간사 이극로(李克魯)씨를 청하여 한글날 기념 강연을 하였다

○각 신문 한글날 특집

이번 한글날에 각 신문지는 특별히 기념하는 뜻으로 한글날 특집 폐지를 두었다. 참고를 삼기 위하여 그것을 모두 아래에 전 재한다.

朝鮮日報

(第五一八三號)

오늘은 先聖 世宗大王께서 한글을 創製하신지 四百 八十九年이 되고, 한글 紀念日로서 制定한지 十年재 되는 우리 民族 文化史에 있어서 가장 크게 記念할 날이다. 勿論 지나간 半千年동안에 우리네의 모든 文化가 많이 畸型的 發展을 해오느라고 우리네의 자랑거리도 드러나지 못한 것이 있었고, 남부끄러운 것도 없어지지 못한 것이 있었지만, 그중에도 심한 것은 世界 어느 文字에 비해서도 가장 完美的 지경에 가까운 우리 正音이 우리의 손에서 虐待를 받아서, 그 眞價가 發揮되지 못하고, 그 發展이 다음 것 되지 못한 것은 우리의 遺憾으로 여길 것만 아니라, 또한 莫大한 羞恥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近年에 와서 우리 民衆이 다 가치 正音의 소중한바를 깨닫게 되고, 또한 그 眞價가 世界的으로 認識되는 過程에 있는 것은 우리네의 同慶同賀할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글이 創製된지 四百 八十九年이요, 正音을 記念한지 十回재 되는 이 날에 이 「特輯」을 냄으로써 우리 民

衆과 더불어 이 날을 기쁘게 記念하려는 것이다. (一記者)

한글 頒布 記念日에 際하여 (社說)

一
今 十月 二十八日은 한글(訓民正音) 頒布 第四百 八十 九回 記念日이다。即 지금으로부터 四百 八十 九年前 이 날에 世宗大王 께서 創製하신 訓民正音을 民間에 頒布하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學習하게 하고 널리 使用하게 하시니, 이 날로부터 조선사람의 固有한 글과 글월이 있기 비롯하였다。오늘에 以므로 조선말을 말하고 붓으로 한글을 쓰는 우리로서 우리 固有의 글이 誕生한 이 날, 朝鮮文化史上 大書特記할 意義 깊은 이 날을 어찌 잊을수 있으며, 閑却할수 있겠는가。 그래서 全民族의으로 이 날을 祝賀하고 뜻있게 보내기 爲하여 十年前 卽 한글 頒布 後 八回甲 되던 丙寅年부터 이 날을 「한글 記念日」로 制定하여 特別 記念하기로 하였으니, 이것이 곧 한글 記念日이다。오늘 다시 한문을 맞이함에 當하여, 吾人은 새로운 感激으로써 이 날을 祝賀하는 同時에 記念하고자 하는바이다。

二

人類文化와 文字가 如何히 至大한 關係를 가졌는가는 여기서 다시 啾啾할 必要가 없나바, 文字 없이는 文化의 한 조각도 傳承 保存하여 이것을 發達하게 할수는 없었을것이니, 文字야말로 社會生活上 不可缺의 必要要件이요, 文化 發達의 基本이다。 그러므로 한 民族을 文化民族과 未開民族으로 區分하는 境界線은 文字의 有無가 그 第一義的 條件이 되는것이니, 固有한 文字를 가지지 아니한 民族을 어찌 文明한 民族이라 할수 있으랴。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오늘날 우리가 世界에 자랑할만한 固有한 文字를 가지게 된것은 오로지 世宗大王의 高遠하신 先見으로 말미암음이니, 民族文化의 基礎를 세우신 賢哲하심신 大王의 偉業을 오늘에 다시금 우러러 追憶하지 않을수 없는바이다。 다음엔 不幸히 이 高貴한 文字의 價値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賤待한 結果, 數百年 동안 泥土속에 묻혀서 빛을 내지 못하던 이 民族의 보배를 다시 發見하여 닦고 갈아서 그 眞價를 알게한 周時經 先生 以下 斯界에 盡瘁한 여러 先輩의 功績을 들재록 稱揚 하지 않을수 없다。

三

이리하여 오늘날에야 비로소 한글의 價値를 참으로 自覺하게 되고, 우리글을 글답게 쓰게 된것은 實로 慶賀할 일이라고 하겠거니와, 지금에도 이것이 完全히 整理 統一되지 못하여 不便이 尙存한것은 遺憾이라고 아니할수 없으니, 事情上 許諾하지 않는 여러가지의 條件이 橫在하였다 하더라도, 이 모든것을 무릅쓰고 마땅히 우리는 한글을 나아가서, 이 民族의 偉大한 遺産이요 生命인 한글의 整理와 統一을 完成하는데 盡瘁하여서, 民族文化 建設의 새로운 礎石을 쌓아야 할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文化的 經綸을 達成할수 있고, 이렇게 하여서 만 오늘날의 이 記念의 기쁨과 感激을 千秋萬代에 傳하여 끊임이 없게 할수 있을것이다。 이 날을 特別 記念하자는 意義도 또한 이곳에 있는것이다。

四

끝으로 이 날에 當하여 한가지 크게 遺憾으로 여기는바가 있으니, 이 한글 記念日도 한글로 지키지 못하고 다른 날을 따로이定하여 記念하는이들도 있어서, 混亂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것이다。勿論 한글 頒布日은 元來 史冊에 分明한 記錄이 없어 正確한 날은 모르므로, 구태여 어느것을 받듯이 옳다

고 할 수는 없으나, 여러가지로 상고하고社會各方面의 意見을 綜合하여 이 날로 定하고, 이미 數年 동안 이 날을 지켜온 以上, 多少의 意見의 相違가 있다 하더라도, 이 날을 다 가치지킴으로써, 이 날은 한글 記念日로 確定되는 것이다. 學說의 論駁이면 또 몰라도, 이것까지 서로 옳다고 固執하여 한社會에서 記念日을 두번씩 지킨다는 것은 옳은 일일뿐 아니라, 이 날 하로까지도 統一하지 못한다는 것은 民族의 一大 恥辱이라 고 아니할 수 없다. 記念日을 慶祝함에 際하여, 敢히 一言으로써 再三 考慮를 促하고 저하는 바이다.

正音小史

文 湖 岩

世宗大王께서 訓民正音を 만드신 것은 文 化史上 그 많은 業績中에도 가장 빛나고 거룩한 業績이시다. 正音を 만드신 動機에 있어서 는 그 御製文에 「各國이 제각기 글자를 가져 말을 적는데, 홀로 우리 나라만 없다」고 하였고, 「愚民이 말하려는 바 있으나, 또 한 그情을 펴지 않으니」고 하신 것을 仰察하면, 거기는 두가지 意氣로 나눌 수 있으니,

하나 는 民族的 意義와, 하나는 民衆的 意義가 包含되었다. 漢化의 風潮가 擧世를 휩쓰는 그 관에서 至高하신 文化的 聖愛에 타실 이 없고서는 아무리 大天才시라도 到底히 이 글을 만드시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므로 正音은 그 글자 自體가 가진 完美한 價値外에도 그 글자 創作에 表示된 高貴한 理想이 있는 것을 깊이 記憶하여야 하겠다. 崔萬理 같은 頑固輩의 反動運動을 누르시고, 二十八字를 完成하신 뒤에도 오히려 三年 동안 研究를 거듭하실새, 宮中에 正音廳을 두고 鄭麟趾 成三間 申叔舟 崔恒等 集賢殿 諸學士를 시켜 자세히 解釋을 더하게 하시고, 한편은 龍飛御天歌를 正音으로 적어 實驗을 해보시고야 비로소 二十八年 丙寅(西紀一四四六) 九月에 正式 頒布를 하셨다. 世宗께서 正音 만드시기에 너무나 苦心하신 結果, 眼疾이 나서서 溫泉에 擧動하실 때도 그 研究만은 中斷하지 않으셨고, 集賢殿 學士들이 世宗을 도와 正音 創定에 얼마나 努力하였는지, 成三間 申叔舟 등이 黃瓚에게 音韻을 묻기 爲하여 遼東에 往返한 것이 前後 十三次에 이르렀다. 正音 頒布後에 世宗께서 그의 徹底한 普及를 꾀하실새, 申叔舟에게 命하사 洪武正韻을 翻譯하게 하였고, 首陽大

君에게 命하사 月印干江曲을 撰述하게 하였고, 佛典의 主要한 것을 翻譯註解하였었고, 成宗 때는 三綱行實 등의 刊行이 있었었다. 特히 世宗 五年 庚辰에 이르러는 訓民正音を 文科 初場에 試講하랍신 御命이 계셨은즉, 오늘날로 이르면 高文試驗에 一課目으로 넣은 셈이다. 이로부터 正音이 그 頒布로부터 成宗 때까지는 아주 順調로 發展을 이루었다. 燕山 같은 暴君 때도 처음에는 曆書까지 正音으로 翻譯하였으나, 同 十年 甲子士禍가 있을 해에 燕山의 失政을 誹謗한 諺文의 匿名 投書事件이 생겨, 이로해서 燕山의 觸怒한 바되어, 正音を 모두리 불사르고 正音아는 이는 禍를 당하게 되니, 正音은 社會에서 아주 자취를 감추게 되는 一大悲運에 빠졌다. 燕山의 禁壓으로 世間에서 驅逐된 正音이 山中으로 逃亡하여 겨우 僧侶의 손에서 一縷의 殘命을 扶持하여 왔었다. 中宗이 反正 은 瘡傷이라, 어찌 쉽게 回復이 되리오. 崔世珍의 訓蒙字會가 생겨났으나, 正音의 原則에서 멀어지는 弊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더구나 漢化에 中毒된 社會라, 公私間에 正音を 蔑視하여 글자로 取扱하지 아니하였으

므로, 法典에는 諺文 證書는 無効에 들리었고, 譯官 試驗에는 가장 必要한 諺解를 뽑아 버렸으며, 한번은 暗行 御使가 그 告目中에 諺文을 섞었다가 곧 革職을 당하고 말은 예까지 있다. 그리다가 公文書에 다시 쓰기 시작한 것은 甲午 更張부터요, 一般이 愛用하기는 近數十年의 일임은 누구나 다 아는바 아니와, 朝鮮人이 이같이 盡善 完美한 글자를 가지고도 잘 活用하지 못하기 때문에 文化上 損失이 실로 莫大하였었다.

한글 記念日의 由來

李 熙 昇

言語 文字가 얼마나 人類文化에 重大한 關係를 가졌는가? 여기에는 그것을 論述하는 것이 主要한 目的이 아니기로 贅說을 避하기와, 어쨌든 言語 文字는 우리 生活에 있어서 저 衣食住와 함께 하루도 不可缺할 要具다. 뿐만 아니라, 文字는 文化 發展의 推進機가 된다. 그리하여 이 推進機의 好不完 不完은 곧 文化 發展의 速度를 規定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訓民正音은 가장 完美한 推進機인데, 이에 對한 우리의 態度는

너무도 認識不足이였었다. 認識錯誤였었다. 그리다가 近世에 이르러 우리가 自我에 눈 뜨고, 言語文學에 對한 知識을 얼마큼 얻은 後로 訓民正音과 같은 훌륭한 글이 累百年 동안 얼마나 慘酷하게 賤待 받아왔으며, 그 組織과 運用이 얼마나 科學的인가에 瞭然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에게 固有한 文字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자량이 되거늘 하물며 訓民正音과 같은 理想的 文字를 가졌음에랴. 그리하여 우리는 이 글의 頒布를 記念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責任을 痛感하게 되었다.

◆
今年는 訓民正音이 頒布된지 四百 八十 九週年 되는 해요, 同時에 그 稀代의 盛事를 祝賀하기 爲하여 記念式을 舉行하여 오기 十年재 되는 해다.

이 記念式을 最初로 舉行하기는 지금으로 부터 滿九年前인 丙寅 陰 九月 二十九日(陽 十一月 四日)이었다. 그때에 新民社와 朝鮮 語學會의 前身인 朝鮮語研究會의 共同 主催로 食道園에서 斯界에 研究가 깊은 先輩를 비롯하여 社會各方面의 人士 數百餘名이 會合하여 訓民正音 八週甲(四百 八十週年) 記念式을 盛大히 舉行하였던 것은 아직도 世

人の 記憶에 새겨져 있다.

이 記念式 日字를 定하는데 對하여는 故 魚九迪氏가 世宗實錄에 就하여 考證하였었다. 그리고 그는 丙寅 陽 十一月 十四日 附東 亞日報 紙上에 二日間 連載된「正音의 故典」이란 小論文中에도「陰 九月 晦日(小月)로 記念祝賀함이 當然하다」는 말을 하였었다. 이에 對하여 同年 十二月 八日, 十日 附同 紙上에 內資洞 金汝植氏란이 寄稿한 文中에는「正音을 制定 頒布한 날은 陰 九月 二十九日이 아니요 陰 十一月初八日이라」는 異論을 세워 魚氏의 考證에 抗議한 일이 있었다고, 다시 同年 同月 二十九, 三十日 附同紙上에는 金氏의 異議를 辨駁한 魚氏의 詳細한 考證이 再次 發表되었었다.

◆
그 後로는 正音記念 日字에 對하여 아무 도 一言半辭 異議를 내세우는 이 없이, 每年 陰 九月 二十九日로써 訓民正音 記念祝賀의 式을 舉行하였었다.

그리고 朝鮮, 東亞, 中央等 各紙上에는 이 날에 特別히 한글 記念號를 刊行하여 가장 意義있게 한글날을 지켜왔다.

이와 같이 六個年間을 陰曆으로 지켜오다가, 正音 頒布 第四百 八十六回되는 壬申

年부터는 陽曆으로 換算하여, 陽十月二十九日로 記念式을 舉行하게 되었다. 그理由는 우리의 現代 文化生活는 漸次 모두 陽曆을 標準하게 되는데, 唯獨 訓民正音 記念日 단 언제까지든지 陰曆을 墨守할수 없음을 痛感하였던 까닭이다. 그리고 陽曆으로 換算하는대는 李命七氏의 수고가 많았었다. (詳細는 壬申 十月 一日 發行 한글 第一卷 第五號 參照.)

壬申, 癸酉 兩年間은 陽十月二十九日로 記念式을 舉行하였으나, 昨年에 이르러 陰曆 換算 方法에 多少 疑心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것은 처음에 陽曆으로 計算할 때에 世宗大王 當時 西洋에 施行되는 율리우스曆을 基準삼아 換算하였는데, 朝鮮에서는 도무지 施行된 일이 없는 율리우스曆을 換算의 基準된 일이 없는 율리우스曆을 換算의 基準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은즉, 西紀 一五八二年 以後로 今일까지 使用되는 그레고리曆으로 世宗大王 當時까지 溯及 計算하는 편이다 옳는 結論에 이르렀다. 이 結論을 얻기까지에는 朝鮮語學會에서 李命七氏, 權相老氏, 延禧專門學校 教授 李源喆 博士, 仁川에 있는 朝鮮總督府觀測所, 京城에 있는 京畿道京城測候所, 滿洲國立中央觀象

臺에 在勤中인 金時中氏等 諸專門家와 專門機關에 委囑하여 一致한 意見을 얻게 된 慎重 方法을 經由하였다. 그리하여 昨年부터는 從前과 一日의 差가 있는 陽十月二十八日로 改定하였다.

그런데 訓民正音 頒布 日字가 未詳하고 달만 世宗 二十八年 丙寅 九月인것은 史家로 나 朝鮮語學會員으로나 筆者 個人으로나 其他 靑年한 常職을 具有한 사람이면 모를이 가 없을 것이요, 日字가 未詳한 以上, 어느 날로써 紀念日을 定하는 것이 가장 妥當할가 하는 것은 故 魚允迪氏의 考證이 昭然하지마는, 朝鮮語學會에서는 다시 史家의 諸權威를 網羅한 震檀學會와 그 외의 여러 史學專門家에게 委囑하여 訓民正音 頒布日에 關한 實錄記事의 解釋을 質正하였었다. (下略)

朝鮮語文 整理運動의 今後

李 克 魯

訓民正音 頒布 第四百八十九回 날은 即 朝鮮 民衆이 이 날을 認識하고 記念式을 舉行하여 오는 第十回니, 곧 한글날 記念 第十回 날이다. 이 날을 맞아, 先聖의 勳業을

追慕하는 同時에, 또 우리의 앞으로 하여갈 語文 整理運動을 한번 말하는 것도 이 한글날을 記念하는 뜻이 될 것이다.

一、語文의 紊亂한 現狀

거룩하신 世宗大王께서 크게 깨달은바 있어, 여러 선비로 더불어 여러 해 동안 苦心에 苦心을 더하여, 한글을 創製하신 뒤에 頒布하시자, 그 글로써 우리 말을 바로 적고 널리 쓰게 하시매, 當時에는 이 語文에 對한 努力이 많았던 것을 創作과 翻譯을 보고도 넉넉히 알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漢文에 中毒이 된 自覺이 없는 씨는 선비들의 한글 賤待는 한글 學者가 날수 없었다. 그러므로 朝鮮語文의 科學的 努力이 中斷되고 結果는 語法이나 辭典 編纂이 나지 못하고 말았다. 그 結果는 오늘날과 같이 한글자를 가지고 各人 各色, 아니 한 사람으로도 이 줄 저 줄이 다르게 쓰는 不統一이 생긴 것이다.

二、語文 整理의 三大 基礎工作

집을 짓는 데도 基礎工作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우에 建物이 危險할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한 民族이 쓸 語文을 整理하려면, 그 基礎工作의 힘들것은 짐작할수 있는 것이다. 이 語文 整理의 基礎工作으로 첫

재는綴字法統一案이 서야 되고, 들재는標準語가定하여져야 되고, 셋재는 外來語가查定되어야 된다. 이 세가지 가운데 (1)綴字法統一案은 朝鮮語學者 十八人으로 組織된 委員會에서 三箇年 동안에 準備會議과 開城의 一讀會議과 華溪寺의 二讀會議와 修整會議를 지나서 再昨年 한글날에 비로소 社會에 頒布되었다. (2) 우리 조선말은 아직 標準語가 서지 못하였고, 서울 사투리로부터 各地方 사투리까지 亂雜하게 쓰이므로 한가지 事物에 對하여 여러가지로 表示하고 있다. 이것은 言語生活에 無限한 紊亂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朝鮮語學會에서 數年間に 많은 材料를 모아가지고 討議하기를 準備한 뒤에 今年 一月初에 忠南 溫陽 溫泉에서 第一讀會를 열었고, 今年 八月初에 東小門外 牛耳洞에서 第二讀會를 열었고, 또 修整委員들이 나서 修正하고 整理하는 中인데, 앞으로 또 第三讀會가 열릴 것이 豫定이다. 이 標準語查定委員은 京城語를 標準語로 삼은 것만큼 京城 及 近畿 委員이 全委員數의 半數가 되고, 그 외의 半數는 各道別로 또 人口 比例로 委員數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第一讀會의 委員 總數는 四十人이고, 第二讀會의 委員 總數는 七十人으로 되었다

(3) 外來語 곧 다른 民族의 말이나 固有名詞를 우리말 속에 섞어 쓰는 때에는 분명히 우리말과 같이 標準語와 綴字法을 定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자면, 먼저 한글과 萬國音聲記號와의 對照案을 만들어가지고, 이 基礎 위에서 各 外來語의 綴字法을 定할 것이다. 이것은 數年前에 各 新聞社의 부락을 받아 委員이 나서 그동안 立案中에 있는데, 이것도 멀지 아니한 將來에 完成될 것이다.

三、朝鮮語는 아직 單語가 이렇지 못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概念이 分明하지 못한 점도 있고, 또 大部分은 글을 달아 쓰므로, 한 單語를 만들어 쓰는 習慣이 없는 까닭이다. 한 概念을 한 單語로 만들어 한 덩어리로 묶어 쓰지 아니하므로, 讀書能率이 나지 못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 字母마다 읽어서 소리를 내고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漢文字를 한 덩어리를 한 번에 보아서 그 뜻을 잡아내듯이 字母文의 綴字도 그리하여야 된다. 이것은 무슨 原理原則 몇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여가면서 읽어야 읽는 것이 아니라, 文字의 訓練과 習慣으로만 能通할 것이다. 그러므로, 綴字辭典이 나와야 될 것이다. 이 綴字辭典을 通하여 訓

鍊을 받은 뒤에야 綴字는 完全히 統一될 것이다. 이제는 누구나 綴字統一案을 좇는 態度만 取하면 되나니, 그 態度의 證明은 배우지 아니하고도 아는 된 소리를 된 것으로 아니 쓰고, 같은 字母를 나란히 쓰는 곧 並書하는 데에 있다.

四、綴字辭典

우에 말한 綴字辭典을 通하여 文字의 形式統一이 될 것이므로, 朝鮮語學會에서는 또 數年來에 綴字辭典을 編纂하고 있다. 우에 말한 三大 基礎工作이 끝이 나면, 곧 整理하여 出版할 것이다. 言語教育은 形式統一 곧 綴字統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의 뜻을 바르게 알리는 것이 또 重要하다. 이 使命을 가진 것은 곧 말의 뜻을 밝히어 註解한 大辭典이다. 그러므로, 五年前에 朝鮮語辭典編纂會를 組織하고, 大辭典 編纂에도 努力하는 中인데, 이 辭典은 말의 뜻을 밝히는 것이므로, 各方面 專門家의 知識을 要求하게 된다. 그리하여 各專門家 數十名에게 自己 專門에 關한 語彙를 맡기어서 註釋을 다는 중이다.

五、出版界 統制의 必要

이제 大勢는 벌써 統一案으로 統一되었다 이것은 昨年 한글날 中心으로 열리었던 朝

鮮語學圖書展覽會에 陳列된 最近 出版 圖書에 나타난 綴字로써 證明되었다. 이제 學生들이 書店에서 책을 사고자 할 때에, 먼저 「그 책이 新綴字로 되었소」하고 묻는다. 만일 아니라 하면, 「그 책을 어디 쓰겠소」하고 돌아서 간다는 말을 書籍商에게 이따금 듣는다. 이제 新綴字法을 모르면 時代의 落伍者로 自處할 지경이다. 朝鮮語 教科書의 新綴字案이 統一案보다 먼저 난 것만큼 多少間 다른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大體의 精神은 한가지다. 그래서 教科書로부터 新聞 雜誌 其他 一般 出版物이다. 新綴字法 軌道로 걸러간다. 세로나는 예수教會의 書籍은 勿論이 아니라, 이제 聖經까지 新綴字로 出版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新小説은 勿論이 아니라, 舊小説까지 新綴字로 아니 막이어서는 팔 길이 차차로 막히게 되었다.

그러므로 舊小説을 많이 出版하는 書籍商은 朝鮮語學會에 依賴해야 全部 新綴字로 고치는 中에 있다. 漢文字典이 新綴字로 된 것이 있고, 또 印刷中에 있는 것도 있다. 이 出版界의 趨勢를 보아서, 朝鮮語學會 안에 한글 新綴字 校正事務所를 特設하고, 누구나 原稿 校正의 依賴가 있다면 應하여 주고, 또 누구나 新綴字 學習을 要한다면, 隨時應對

할 計劃이 있다. 이런 統制 밑에서 綴字 統一이 하루바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는바이다.

朝鮮中央日報

(第二七四七—二七四八號)

한글 誕生 四百八十九年

李 寬 求

오늘은 十月二十八日, 울로부터 四百八十九年前 이 날에 世宗御製 訓民正音이 비로소 頒布되었었다. 傳하는바에 依하면, 멀리 壇朝적부터 文字가 있었다고 하나, 考證할 길이 없고, 扶餘 三國 南北朝의 各時代에 도 獨特한 文字의 製作이 있었다고 하나, 또한 찾아볼 곳이 없다. 萬一에 正音 以前에 우리의 손으로 만든 文字가 남아 있다고 할진대, 이는 羅末 薛聰의 創製한 吏讀文字 밖에는 들을 것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漢字로 邦音을 標記함에 지나지 못하므로, 純粹한 한글字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겨레가 半島에 나라를 肇判한 뒤 四千載에

가깝도록 古代의 文字가 자취없이 사라졌으며, 또 새로이 나타남이 없이 正音이 發布되기까지 이르렀다. 함은 참으로 야릇하고 부끄러운 일이었다.

二

그러면 그것이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되었는가? 이것은 다름이 아니다. 漢族이 東漸하여온 뒤 三千餘載에 漢文學의 影響이 우리 겨레의 知識階級을 支配하여 왔으며, 知識은 眞骨 兩班等 支配階級에 獨占되어내 려왔던 까닭이다. 그리하여 더욱이 三國以後로는 漢文으로만 모든 記述을 하게 되며, 古代文字가 있었다고 말할지라도 제대로 없 어지고 말게까지 된 것이다. 이렇던 時代 더 욱이 儒敎를 極崇하던 李朝時代에 미치지 어 世宗御製 訓民正音의 나옴은 이어져 놀라 운 일이 아니라. 禁中에 局을 두고 心血을 集注하여 寢食을 잊어가면서 만들어 낸 것이 을부터 四百八十九年前 世宗 二十五年 癸亥 十二月이 있었었다. 그 동안의 苦心한 經綸, 綿密한 研鑽은 참으로 예사가 아니었다. 當時의 一流學者는 여기에서 머리를 모우게 되 었으며, 各國의 文字와 音韻은 여기서 눈에 거치지 아니한 것이 없었었다. 이리므로 말 미암아 우리의 한글字는 音韻이 이르지 아

니한바 없으며, 形體가 빈틈없이 고르고 짜
이어 가장 合理的이며 가장 理解하기 쉬운
世界無比의 靈妙한 文字가 되어나온것이다.
이러한 글의 나옴이 어찌 朝鮮文化史上 破
天荒의 新紀元이 아니고 무엇이랴. 이는 참
으로 朝鮮民族 全體에 對한 智識의 解放이
요, 大衆文化의 唯一한 契機와 새로움이 되
지 아니할수 없었다. 우리는 이러므로 이날
을 길이길이 그리고 또 기리어 마지 아니
하는바이다.

三

그러나 이러한 貴重하고 微妙한 글을 가
지고도 어찌하여 오늘날까지 저 難澁한 漢
文에 얽매어 한글 文學의 自由로운 發展을
보지 못하고 내러왔는가. 우리의 한글은 저
支配階級의 智識獨占慾 漢文에 對한 執拗한
先入見으로 말미암아 餘地없이 짓밟히고 말
았다. 그리하여 諺文이라는 卑俗한 待遇를
받게까지 되었었다. 오늘날의 우리로서 저
漢文의 한글 發展에 對한 惡影響을 한번 생
각해볼 때에는 참으로 憤怒의 타오름을 느
끼지 않을수 없다. 더구나 中國 自體內에서
도 白話運動이 일어나며, 文字改良運動이
자못 盛하야, 저 몸설이나는 漢文을 廢止하
려고 하는 이때이니, 우리로서 저 漢文을

廢止하자고 부르짖음이야 當然한 가운데도
더욱 當然한 일이 아닐것인가. 우리는 이날
을 만겨 맞고 깊이 새기어 紀念한다. 그리
고 저 한글의 敵 漢文에 對하여는 이로부터
徹底히 우리 社會에서 根滅시키지 아니하면
아니 될것을 느끼고 있다. 靈妙易解의 한글
을 가진 우리들로서 躊躇할바 무엇인가. 우
리는 이러한 한글로 우리의 文化를 지으며
늘리며 퍼치어 써 世界文化에 貢獻함이 있
고, 나중에는 그의 한 큰 棟樑이 되기를 期
約함은 우리의 누구나 다 뜻하는바이겠으
나, 이것을 빨리 實現하고 못하는데는 오직
漢字를 廢止하야 써 우리 글월의 圓滑한 發
展을 꾀함에 있음을 굳게 믿으며, 이로부터
이 運動의 기운차게 勃興함을 期待하는바이
다. (끝)

한글날의 由來와 意義

오늘은 陽曆 十月二十八日 한글날이고
내일은 陰曆 十月三日 檀君開天節이다

崔 鉉 培

한글날은 곧 우리의 한글이 이 세상에 난
날이다. 한글의 「한」은 「大」이요, 「글」이

요 「正」이니 곧 訓民正音을 뜻하는 말이다.
그리하여 한글날은 곧 訓民正音이 난 날이
다.

訓民正音의 創製에 世宗大王께서 그렇듯
한 睿聖의 天資로써도 長久한 歲月에 許多
한 刻苦勉勵를 쌓으신 줄은 여러 史實로써 너
너히 짐작할수 있지마는, 그 完成에 이르기
까지 꼭 몇해나 걸리셨는지 그것은 꼭 알수
가 없다. 何如든 世宗 廿五年 癸亥 冬에 다
되기는 하였으나, 다시 三年 동안의 雕啄과
鍊磨를 더하야 萬全의 成案을 얻어서, 廿八
年 (西紀 一四四六) 丙寅 秋九月에 頒布하
신것이다.

二

訓民正音의 完成 및 頒布는 實로 우리 朝
鮮 겨레의 精神的 文化的 再誕生이다. 訓民
正音 以前에도 우리에게 文字가 없었바
아니오, 燦爛한 文化가 없었바 아니로되,
訓民正音이 나서 비로소 우리 조선의 文化가
그 正路를 얻었으며, 백성이 그 生活의 利
器를 얻었으며, 民衆이 그 無識의 愚盲에서
解放되었으며, 萬代의 繁榮과 飛躍의 原動
力을 얻었다. 이는 오로지 千古의 睿智와
萬代의 聖德을 兼全하신 世宗大王의 高恩
深惠의 주심이라. 年年歲歲로 이날을 當할

적마다一邊으로는世宗大王에感謝의微衷을表하며、또一邊으로는萬民慶賀의盛儀를表함이當然한일이라하겠다。다시말하면、訓民正音의誕生日은우리의全民衆的名節이될만한것이다。

무릇어느나타를勿論하고年中에여러번의名節을가지고사람사람이서로기뻐하며서로하례하야、或은過去의훌륭한業績을紀念하며、或은現在의生存을즐기며、或은將來의發展을祝福함은東西나古今이다름이없다。이제辛酸이많은조선사람에게한글날로써文化的名節을삼아서、紀念하며慶賀함은매우意義깊은必要한일이라하겠다。

三

訓民正音의生日을紀念하기는이제로부터十年前에시작된일이다。世宗大王的二十八年丙寅으로第八週甲인丙寅年即지년丙寅年(一九二六)陰九月二十九日에新民社와우리朝鮮語學會(그當時는朝鮮語研究會)의合同主催로써社會各方面有志人士의贊同을얻어、市内食道園에서盛大紀念式과紀念祝賀宴을舉行하였었다。元來訓民正音의頒布日字는李朝實錄에도明記하지아니하고、다만世宗二十八年丙

寅九月二十九日條에是月에訓民正音이頒布된다」고만적혀있을뿐이다。그래서어느날로써그紀念日을삼아야可할가에對하야、이方面識者의論議考證이있은다음에陰九月二十九日이옳다는結論을얻은것이다。그래서그뒤로해마다陰九月二十九日로써「한글날」을적혀오다가、世界の大勢를따라지금부터五年前에이날을陽曆으로換算하여서陽十月二十八日로써한글날을定하였다。이陽曆換算에對하여는 처음에는多少日字上疑義가있었으나、朝鮮語學會에서各處專門家에게請하야그報告를收集하여본結果、世宗二十八年丙寅九月二十九日是西紀一四四六年十月二十八日이었음이確定無疑하게되었다。

오늘은한글頒布第四百八十九週年인十月二十八日한글날이다。가을빛도漸漸 깊어져서山에는紅葉이繡를놓고 들에는百穀이익어사람살이가매우즐거울때이다。더구나來日은陰十月三日이니、即檀君開天節이다。開天節은朝鮮生命의發源이요、한글날은朝鮮文化의原動이다。이때에이날을紀念함이더욱기쁜일이며뜻있는일이다。(끝)

한글創制

한글運動十週年

李萬珪

一、한글創制의精神

첫째로民族本位의精神에서지었다。한民族이있으면그民族의言語가있는것이요、言語가있으면、그言語에맞는文字가 있어야할것이다。그러함에도不拘하고、世宗當時까지도適用할만한文字가없었으니羅麗文明을繼承한當時文化族으로當然히自身の缺乏을느낄것이다。當時의文字로는漢文밖에通用되지않았는데、그쓰는方法이세가지가있었다。첫째는漢文그대로쓴것이다。예를들면「有天地自然之聲必有天地自然之文」따위요、둘째는漢字의音이나義를떠다가音、義로섞어붙여서말을적었던것이다。예를들면「밤들도록노니다가」를「夜入伊遊行如可」라고쓴따위니이는吏讀란것이요、셋째는漢文을읽을때에文義가斷絶되어토를조선말로달적에쓴것이니 예를들면「이다하을지마두」를「是如爲乎乙喻良置」라고쓴따위니이는口訣이란것이다。

音字는 口를 基本한 것이니, 입술(唇)을 본
뜻 것이요, 齒音字는 人를 基本한 것이니, 이
(齒)를 본뜻 것이요, 喉音字는 口를 基本한
것이니, 목구멍(喉)을 본뜻 것이라고 하였다.
(訓民正音圖解)。

、一一一ト下ナカキヲハ 소리들은 무엇
을 象徵하였다고 斷言할 수 없다. 或은、를
太極으로, 一를 陽, 一를 陰으로 其他를 太極
이 生兩儀하고 兩儀가 生四象格으로 變化하
였다고 하나, 創意한이의 思考가 그러하였
는지 疑問이요, 或은 映窓살을 보고 지었다,
或은 井字를 보고 지은 듯하다 하나, 斷
言할 수 없는 말이다. 다만 曲線, 圓形, 細
太, 斜線, 波形, 角形等 複雜한 것이 없어
縱橫線 두개로 長短을 加味하여 簡單하고
分明하고 整形된 長點만은 가진 것으로 確實
히 智巧를 發揮한 것이다.

三、한글 創制와 苦心

첫재로 完成에 苦心이니, 大王이 이 한글
을 創制할 때의 苦心은 確實하고 詳細하게
적헌대가 없으니,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
나 發明人의 通有한 苦心과 또는 片鱗으로
文獻에 들어난 것을 머루어 그 일이나 苦心
하신 것을 알 수 있다. 人類의 머리로는 完全
한 그 무엇을 絶對 創作하지 못한다. 조그

마한 端緒와 모델이라도 聯想을 일으킬만
既成事實에서 智識을 얻지 아니하면 發明을
못하는 것이다. 近代에 多數한 또는 可觀한
만한 것을 發明한 예도 손도 모두가 無名한
他人의 未成品에서 研究의 端緒를 얻은 것이
다. 그러므로 創制에는 參考와 博覽이 많아
야 한다. 무엇에나 創制는 或은 集大成 或은
加工助長 或은 模擬의 發表이다. 創造者의
苦心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世宗
께서도 當時 隣邦 文字를 蒐集參考하시기에
苦心하였을 것이요, 그것들을 比較하고 研究
하고 取捨하기에 苦心하셨다. 成三問을 遼
東 黃贊에게 十三次나 보내신 것과 眼疾로
淸州 椒井애를 行幸하실 때에 다른 公文書
는 다 밀치고 正音 研究 書類만 가지고 가
신 것等 事實으로써 그 苦心하신 자취를 엿볼
수 있다.

둘재로 普及에 苦心이니, 무슨 일이든지
얼던 일을 처음 創制하면, 反對者가 있으며
또는 既成 勢力과 思想이 새것을 滅殺시키
려는 것은 어느 時代 어느 일에든지 있는 것
이다. 訓民正音도 이 人事의 常軌를 아나 王
을 리가 없었다. 그리하여 創制할 때부터 大
王의 指導를 받은 文臣中에 反對한 자가 많
았고, 漢文에 머리가 무딘 頑儒들은 이 非凡

한 聖智를 엿볼 줄을 모르고 抗疏極論하였다.
그리하여 禁錮와 竄刑을 내리시기까지 하고
頒布後에는 即時 正音廳을 두시며, 科擧에
正音科目을 두고, 列聖祖 創業偉功을 頌讚한
龍飛御天歌와 佛教 要義를 讚揚한 月印千江
曲等 貴重高尚 至難한 文章을 正音으로 지
으사, 이 글로 漢文 以上の 文章을 이를
수 있는 것을 衆人에게 보이시고, 그 實用的
價値와 品位를 올리시기에 苦心하신 것이다.

四、한글 創制와 文學의 進步

오늘날 世界的으로 價値를 가지고 있는
알파베르도 그 淵源을 探究하면 埃及象形
文字의 殘骸遺孫이다. 마치 日本 文字가 漢
字의 音만을 取하였고, 前日 口訣이 漢字의
音을 取하듯이 地中海 附近에 있는 베니개
구리도 商人들이 埃及 文字를 輸入하여 事
務에 쓴 것이 罔緣이 되어 變하고 化하여 象
形文字의 形跡이 없어지고 이제 와서 알파
베르文字가 되었다고 한다. 이같이 世界 文
字는 繪文字 象形文字의 餘骸가 많다. 그러
나 한글文字는 人類 文字中에 最後의 이요,
最新의 이요, 自然發達이 아니요, 人爲的
技妙品인 까닭에 學的 構造의 美的 意匠이
極히 進步되어 있다.

人類와 文字發達의 經路로 보아서 한글은

文字의 總마감한것이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다.

1, 人類가 最初로 使用한것이 結繩이다. 支那에도 伏羲氏 始劃八卦하여 以代結繩之政이라 하였다. 그 방식은 或은 木片에 齒을 내고, 或은 大小長短의 距離가 있는 小枝를, 或은 色彩가 다른 貝殼을 縲索으로 맨 것이니, 이것이 一定한 規則이 있다. 예를 들면, 赤色은 兵丁, 黃色은 金, 白色은 銀, 綠色은 穀物, 一度結은 十數, 二度結은 二百數, 이같이 하여 垂條의 順, 縲索의 方, 連結의 方, 條間間隔, 條上結目等으로 事物을 表示하는 北米 土人의 貝殼帶따위이다. 이것을 文字라고 하기는 어색하나, 文字 代用品으로 볼수 있는것이다. 이 結繩時代에서 좀 進歩한것이 繪文字다.

2, 繪文字는 그림으로 思想을 서로 表示하는것이니, 模樣畫 비슷한것으로, 固有名詞를 表示하고, 線과 點으로 數量을 表示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옛이야기중에 이런 말이 있다. 어떤 無識한 사돈끼리 편지를 하는데, 甲이 乙에게 立方形 그림을 보냈다. 乙은 그것을 누룩(麪子) 달라는 말인것을 알고, 그 그림우에다 길게 줄을 그어 보냈다. 甲은 그것이 누룩을 못 주겠다는 말인것을

알고 옆에 靑紅 두點을 찍어 보냈다. 乙은 그것을 보고, 곧 「이 사람이 성이 나서 얼굴이 푸르라름」라 하였다」하고, 누룩을 보여 보냈다. 甲은 기뻐하며 「이 사람 항복하는구나」하였다고 한다. 繪文字란 곧 이 와 같은 틀로 組成된것이니, 지금도 北米 土人中에서 많이 쓴다고 한다. 이 繪文字가 좀 進歩한것이 象形文字다.

3, 象形文字는 事物 그대로 象徴하여 字形을 만든것이니, 直覺的 或은 觀念的으로 그 內容을 簡明히 表示하는 便宜는 있다. 그러나 그 複雜 多端한것이 도리어 實用에 不便하고 普遍性이 적은것이니, 漢文도 그 中의 하나이다. 이 象形文字에서 몇배 進歩한것이 表音文字다.

4, 表音文字는 말의 音을 그대로 表記하는 符號니, 聲音를 分析하여 音의 元素를 發見하고 元호마다 符號를 하나씩 만든것이니, 字數는 적고 綜合 組成하는대는 千萬 語를 맘대로 表記할수 있는 가장 合理的인 科學的인것이다. 곧 九十元素로 宇宙의 許多한 萬象을 組成한 自然界를 創造한 造化翁의 그 造化가 含蓄한 文字다. 그러므로 一元素 一符號와 같이 一字 곧 一字의 一音

으로 되어야 비로소 文字의 最上 進歩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表音文字中에는 一字一語가 있으니, 곧 漢字의 諧聲따위요, 一字一音節이 있으니, 日本假名이요, 一字一音은 한글이 그것이요, 羅馬字가 더 있다. 그러므로 한글은 人類文字上의 가장 進歩한것으로 橫縱 縱橫을 自由로 할수 있고, 音價가 豊足하여 音의 描를 自由로 할수가 있으니, 實로 人類文字의 總마감이라고 할수가 있다.

한글 運動의 今後

第 四百 八十九 週年을 當하여

金 炳 濟

오늘은 訓民正音 頒布 第 四百 八十九 年을 맞는 기쁜 명절날이다. 이 땅의 民衆이 거룩한 이날을 記念하여 온지도 어느덧 十 週年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感慨 더욱 無量한 날이다.

어느 누가 안 그렇겠으며, 어느 때인들 안 그러라마는, 우리는 年年이 이 기쁜 날을 맞이할 때마다 눈물 겨운 기쁨과 힘겨 거룩하신 世宗聖主의 남기신 偉勳을 感謝하며, 歲歲도록 빛나고 있는 임의 크신 뜻을 追慕하

여 마지 않는다.

半萬年이란 짧은 것은 동안 남들과 같은 훌륭한 民族生活를營爲하면서도 겨레의 固有文字를 갖지 못함을 아파하시고, 鄭麟趾, 申叔舟, 成三問, 崔恒等 신하를 더부러 苦心慘澹 數年만에 創製하신 것이 訓民正音 곧 한글이었으니, 이것은 確實히 民族文化의 새로운 方向과 터를 닦아 놓으신 것이었다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數百年 數千年 동안 써 내려오던 漢文의 勢力和 因襲에 젖은 儒臣 崔萬理等의 激烈한 反對도 물리치시어 久遠한 將來를 바라보시고, 大英斷을 나리셨었다. 그러나 그 뒤로도 風風雨雨 數多한 迫害는 끊임없이 온전한 글로서의 行勢를 하지 못하고, 頑儒들의 賤待받이가 되고 있던 것을 故周時經 先生의 손에서부터 語文의 整理 運動이 시작되었으며, 先生과 뜻을 가치하는 여러 學者들이 뒤를 이어 輩出하여 數百年 동안 헌신적과 같이 내버렸던 보배를 닦고 다루기에 힘을 쓰게 되었으니, 오늘의 朝鮮語學會는 곧 이들의 모임이다.

그러하여 數百年 동안 多數 民衆이 아무런 標準이 없이 各人各書의 混亂狀態에 빠져 있음을 바로잡기에 힘쓰는 한편, 數十會員이 四五年間을 亘하여 數十回의 慎重한 討論을 거듭 한 후 비로소 再昨年 十月二十九日 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世上에 公布하였다. 그러자 全社會의 熱烈한 支持와 聲援과 함께 朝鮮中央, 東亞, 朝鮮等 新聞社에 서는 「통일안」을 그날 新聞의 附錄으로 發行하여 全朝鮮 坊坊谷谷까지 散布하기에 힘을 다하였고, 그 밖에 各中等, 專門學校의 校友雜誌는 勿論, 現在 發刊中에 있는 新東亞, 新家庭, 朝光, 四海公論, 基督申報, 高麗時報, 新人文學, 學燈, 가톨릭青年, 聖書朝鮮, 農民生活, 神學世界, 宗教時報, 三千里, 朝鮮文壇, 詩苑, 藝術, 映畫時代, 批判, 아이생활, 별나라, 兒童世界, 우리집, 哲學, 劇藝術等 各雜誌社에서는 서슴지 않고 모두 發刊을 가치고 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뿐 아니라, 한편으로 朝鮮總督府 編纂의 普通學校 朝鮮語讀本이 今年으로써 改正이 完成되었고, 高等普通學校 教科書도 이미 三卷까지 發行을 보게 되었으며, 近日 新聞紙를 通하여 들리는 바와 같이, 基督敎의 聖經과 讚頌歌를 新綴字法으로 改正한다는 것等 語文의 整理 統一運動은 날로 큰 進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語文의 整理 및 統一運動은 이에서 그치지 않는다. 今年 一月 四十八으로 組織된 朝鮮語 標準語 查定委員會를 溫陽溫泉에서 열어 慎重한 가운데 第一讀會를 마치고 있고, 또 今年 八月에는 委員 三十人의 增選에 依한 第二讀會가 牛耳洞에서 열렸으며, 한층 더 慎重을 期하기 爲하여 第三讀會를 準備中에 있으니, 이 會合이 끝난 뒤에는 조선말의 標準語가 또한 世上에 發表되어 複雜多端한 語彙의 整理를 볼 것이 다. 그리고 뒤이어 數年前부터 起草 整理中에 있는 綴字辭典을 刊行하여 民衆의 敎養에 資할 것이며, 또 이미 다 整理되어 있는 外來語 表記法도 發布하게 될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벌써 七八 星霜을 두고 우리들의 全心を 傾注하고 있는 朝鮮語大辭典도 不遠한 將來에 出刊되리라 하는 것을 讀者 諸氏 앞 에 勇敢히 公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기쁜 날을 맞는 것을 機會로 하여, 우리들을 사랑하는 忠성된 마음과 정이 더욱 큰 덩어리로 뭉치어 지기를 바랄뿐이다. (끝)

東亞日報

(第五三五六一五三五七號)

世宗大王과 한글

李 秉 岐

이에 새삼스러이 말하랴도 없지마는, 우리에게 가장 고마우신 이는 世宗大王이다. 이터하신이가 만일 아니 나셨더라면 櫛風沐雨 하던 太祖의 創業도 어찌 되었을는지 그건 그만 두드라도, 한글과 같은 막대 막중한 보배가 있을는지 모를 것이다. 이터하신이의 行蹟과 또는 한글을 만들어 내시던 때의 그 苦心은 어떠한지, 그걸 이루다 들어 말할 수는 없으며, 비록 斷片的이나마 그 몇가지라도 알아들이 그다지 不必要한 일은 아니다.

世宗大王께서는 李朝 太祖 六年(一三九七) 丁丑 四月 十日 漢陽 潛邸에서 太宗의 셋째 아드님으로 태어나시고, 在位 三十二年 實齡 五十四 되시던 해(一四五〇) 二月 十七日에 昇遐하시어, 驪州 西北山에 葬하였다.

世宗大王께서 처음에는 忠寧大君으로 封하였다. 太宗 十八年(一四一八) 六月에世子가 되시었다. 여기 대하여 俗傳하는 여러 말들이 있으나, 國朝寶鑑을 보면 이러한 일

이 있다. 文武百官이世子 禮(太宗의 큰아들 讓寧大君)가 失德하였다고 廢하기를 청한즉, 太宗은 禮의 큰아들을 세위 嗣續하고자 하였다. 群臣이 모두 말하되, 「殿下께서世子를 教養함에 지극하셨어도 그리한데, 지금 어딘 孫子를 세우시고 어찌 될는지 알 것이며, 더구나 그 아비를 폐하고 아들을 세우는 도리가 있으리까. 어진이를 택하여 마땅히 어진이를 택하여 말하라」 하니, 群臣은 또 말하되 「아드님 아시기는 君父와 같은 분이 없으니, 몸소 택하옵소서」 하였다. 太宗은 가로되 「忠寧은 天性이 聰敏하고 學問을 좋아하여 비록 盛寒極暑라도 밤새도록 글을 읽으며, 손에 冊을 놓을 때가 없으며, 治體에도 通達하니, 나는 忠寧으로써世子를 삼고저 하노라」 하며, 群臣은 하례하되 「臣들 이른바 어진이를 택하시라는 것도 또한 忠寧을 가리침이라」 하고, 즉시 세위世子를 삼았다.

叙上한 것만으로도 世宗大王의 性格과 더욱이 學問을 좋아하시고 讀書를 즐기시고 萬機를 밝게 살피시던 거룩한 聖君이심을 넉넉히 짐작하려나와, 闕內에 集賢殿을 두어 文人 學士를 養成하고, 纂述 制作이 많으

며, 海賊과 野人을 치고, 四郡을 두고, 六鎮을 開拓하는等 業蹟이 一百六十三卷 一百五十四冊이나 되는 巨大한 寶錄에 記載되어 있으며, 그중에도 가장 놀라운 것들은 한글을 만들어 頒布한 일이다. 寶錄을 보면, 世宗 二十五年 十二月에 上이 親히 諺文 二八字를 지으시었다 하고, 世宗 二十八年(一四四六) 九月 二十九日條에는 「是月訓民正音成」이라 하였는데, 備齋叢話를 보면, 新羅때부터 吏讀가 있어 官府 民間이 써오나, 그건 모두 漢字를 빌어 쓰므로 難澁하고 또는 朦朧한지라, 上이 이르되 「諸國이 각기 文字를 지어 제 國語를 記錄하나, 우리나라는 없다」 하시고, 字母 二十八字를 만드시고 禁中에 廳을 두고 申叔舟, 成三問, 崔恒들을 命하여 撰定하고, 이름을 訓民正音이라 하였다 하며, 益葉記에는 「世傳 莊憲大王嘗御圖以 厠籌排列 忽悟解 命成三問等創製云」이라 하였으니, 이는 世宗大王이 뒷간에 가시어 뒤를 보다가 뒷나무(厠籌)를 排列해보시고 만들었다고 지금까지도 전하는 말이다. 世宗大王께서 한글을 만드실 때 이터하신 일도 있을 듯하다. 이것이 一朝一夕에 일론 되어질 것이 아니며, 여러 해포를 두어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끊임이 없는 研

究를 쌓으셨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成三間 같은 學士를 더불고 의논도 하여, 마침내 完成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世宗大王께서 이런 글을 만드심을 反對하는 이도 있었다. 文字(漢文)와는 조금도 干渉이 없는 委巷俚語를 專用하는 것이라고 強硬히 抗疏를 하는 자라, 그때 副提學 崔萬理, 直提學 辛碩祖, 直殿 金汶, 應教 鄭昌孫, 副校理 河緯地, 副修撰 宋處儉, 著作郎 趙埏等을 義禁府에 가두고야 訓民正音(한글)을 頒布하였다. 正音을 한번 頒布한 뒤로는 더욱 그 使用함을 獎勵하여 官文書에도 쓰게 하고, 吏曹의 吏科, 吏典을 取材할 때에는 이것으로서 試驗도 보게 하였고, 龍飛御天歌, 月印干江之曲, 南明集, 其他 佛經 翻譯等 굉장한 纂述도 있었다. 南明集과 같은 것은 世宗大王께서 親히 三十餘首를 번역까지 하셨다 한다. 이와 같이 世宗大王께서는 우리 文化史에 나아가는 우리도 可敬한 자취를 남겨 놓았고, 이 자취를 밝고 永遠히 그 光을 저버릴 수 없다.

한글 創製의 苦心

李 允 宰

우리는 오늘로써 第四百八十九回의 한

글날(訓民正音頒布記念日)을 맞는다. 우리가 해마다 이때를 당하면, 우리 世宗大王的 聖德과 洪恩을 追慕하며 仰讚함을 어찌 平昔에 比하랴.

한글이 文字로서의 科學的 價値가 있음과 世界 文字中 가장 優越한 地位에 있음은 이제 贅言을 不要하거니와, 이러한 것을 創製하기 위해 얼마나 努力과 苦心이 들었음을 이제 우리로서 다시금 한번 생각하지 아니 할 수 없게 된다.

대지 事物의 크고 작음을 물론하고 이를 創作함에는 반드시 여러가지 用意와 費心을 要하는 바이다. 더욱이 우리 文化生活에 直接關係되어 暫時도 떠날 수 없는 文字, 곧 全民衆이 永遠無窮토록 使用하게 되는 萬世의 法이 될 國字를 創定함이 어찌 一旦一夕으로 無難히 될 줄이 있으랴. 혹은 이렇게 생각하리라. 그 까진 諺文이란 字數가 적고 畫數가 적고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것이니, 이것을 만들기에 무슨 힘이 들었겠느냐. 라고. 아닌가 아니라, 世宗께서 뒷간에서 뒤 보시다가 만드셨다(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에 「世傳莊憲大王嘗御園, 以厠籌排列, 忽悟解, 命成三間等創製」)하는 이도 있으며, 窓戶의 문살을 보고 直覺的으로 생각하여 만

들으셨나 하는 이도 있으며, 外國의 文字를 摹倣하여 만드셨나 하는 이도 있다. 이것 이 얼마나 한글의 價値를 떨어트리는 말이며, 世宗大王께서 對하여 無巖한 것이냐.

世宗大王께서 한글을 創製하여 頒布하기 까지 여러가지의 苦心한 것은 이루다 말할 수 없거니와, 다만 記錄에 남아 있는 事實만으로도 족히 우리가 想像하는 以外의 苦心을 살필 수가 있다. 이제 몇가지 事實만 간단히 들어 보자.

첫째 世宗께서 「各國은 다 제 나라의 文字가 있으며, 홀로 우리나라만 없다」라 嘆聲을 發하시었다. 卽우리나라에 文字 없는 것이 國家的으로 수치가 되는 것은 물론이요 語音이 같지 아니한 남의 나라의 글을 쓰게 되므로 人民에게 困難을 攄이 莫大하다는 뜻이다. 이 얼마나 苦痛에서 나온 말씀인가. 둘째 世宗께서 正音廳을 闕內에 設置하신 것을 보면, 한글의 制作이 다만 一時의 事業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새 官廳을 新設하기까지 하여 永續的으로 研究의 機關을 삼았음이며, 또 研究員으로 朝臣中 鄭麟趾, 成三間, 申叔舟, 崔恒等 音韻學에 밝은 學者들을 거기에 두어 밤낮 研究를 쉬지 않게 하시었으니, 한글의 制作이 國家

政治에 重大性이 있음을 아시었음이다.

셋째 世宗께서 當時 明나라 學者 黃瓚이 遼東에 謫居하다 함을 들으시고, 成三問을 보내어 音韻을 質問하게 하였는데, 遼東의 往返이 무릇 十三度に 이르렀다. 그와 같이 머나먼 길에 十三回 往返이란 것은 여간한 時日과 勞力이 들었음것이 아님을 알겠으며 이밖에 한글을 制作할 때에 世界 各國의 言語文字를 다 參攷하였다 한즉, 그것을 調査研究하기에도 무론 이와 같은 勞力이 있었을것을 짐작할수 있다.

넷째 世宗께서 일즉 眼疾을 患하시, 療養하시기 위하여 淸州 椒井에 行幸하시새, 다 른 公文書類는 다 밀쳐두고 오직 한글의 原稿만 가져가서서 玉體에 失攝하도록까지 研究에 焦心하시었다.

다섯째 새 文字 곧 한글을 創製함에 對하여 擧朝가 다 漢文思想에 心醉한자들뿐으로, 도무지 이를 理解하지 못하였을것은 물론이요 頑廢固陋한 崔萬理等의 抗疏極論함 같은것은 일파나 聖慮를 거슬리었음인가.

여섯째 한글을 創製함에 일파나한 時日이 걸리었는지 자세히 알수 없으나, 世宗 二十五年 癸亥 冬에 訓民正音이 成이라 하고, 二十八年 丙寅 九月에 頒布하였었다 하니 그

사이가 三個年이 지난지라. 이를 보드라도, 이를 制作함에는 尙당 相當한 時日이 걸리 었을것을 推測하겠으며, 또 이를 即時發布 하지 아니하고 三個年이나 두고 研究를 거듭하며, 먼저 龍飛御天歌를 지어 實用의 例를 보이며, 萬全을 안 뒤에 비로소 發布하였으니, 그 慎重한 處理와 周到한 用心에는 과연 感服하지 아니할수 없다.

이와 같이 많은 苦心을 쌓아서 한글을 完成한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를 한번 생각할 때에 感涙를 스스로 禁할수 없도다.

한글의 世界的 자랑

李 鉉

한글은 世界文字의 類例 없는 絶華다. 이것은 결코 나의 獨斷的 誇張的 讚辭가 아니다.

世界의 文字는 본래 特權階級의 所有였다 文字는 그 智識을 秘藏하여 支配慾을 滿足 하는 使命을 가지고 있을뿐이었다. 그것이 時代의 進歩와 民衆의 覺醒에 因하여 文字의 使命이 局限되었던 特權階級으로부터 解放된것이다. 그러나 한글은 御製訓民正音序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 不相流通 故愚民

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 予爲此闕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人易習 便於日用耳」라 하신것을 보아도, 애당초부터 民衆의 教化, 民衆의 福利, 民意의 暢達을 使命으로 하고 創定된것이니, 이것만으로도 世界에 자랑하고 남음이 있는것이다.

한글이 어느 文字보다도 배우기 쉽고 實用에 便易하고 보기에 優美佳麗함은 우리가 日常 體驗하는바어니와, 結繩, 繪畫, 象形等 文字 發達의 모든 階段을 超越하여 대등 羅馬字와 같은 알파베트式 文字로 製定된중 에도, 世界 文字中 第一 優秀한 地位를 占하고 있다는 그 羅馬字보다도 비록 一時的 創作이 었을망정, 가장 學術的 組織과 豐富한 音과 整齊한 形式을 갖은것은 世界에 獨步할만한 文字라 아니할수 없다.

지금 文字의 聲音의 觀察을 比較하건대, 一, 日本 文字는 一字一音節인 音節文字라, 聲音을 分할해보지 않았으니, 한글과는 比較거리도 못된다.

二, 세미트 文字들은 본래 母音字가 없었 다. 그중에 헤브리 文字와 아라비아 文字는 뒤에 와서 母音符號가 생겨서 子音字에 붙여 쓰게 되었으나, 사리란 文字는 아직 그 符號도 없이 쓴다. 그러므로 세미트 文

字에는 母音을 라틴 文字의 母音式으로 보지 않았다.

三、데바나加里 文字 (산스크리트 卽 梵文은 子母音字를 各各 外에 또 母音符號를 따로 두어서 子音 上下左右에 붙여 쓰게 하고 다만 母音이 獨立하거나 初聲으로 쓰일 때에만 母音字를 쓰게 되었다. 이것은 母音符號가 子音에 붙어서 한 音節이 되는 것을 보인 것이다.

四、西洋 文字는 그 代表로 라틴 文字를 들어 말하노니, 그것은 子母音字가 各各 있으나, 母音字가 主體가 되고, 子音字는 거기에 從屬이 되어 쓰인다.

五、蒙古 文字는 소리로 보아 西洋 文字와 같은 體系로 된 文字다.

그러나 한글은 以上 各 表音文字들을 超越하여 特殊한 構造로 되어 있다.

한글 起源엔 古篆起源說, 梵字起源說, 蒙古字起源說, 梵字起源說, 古代起源說等 諸說이 있으나, 예전 申景濬 著 訓民正音圖解와 洪良浩 著 經世正音圖說과 姜璋 著 擬定國文字母分解에 나타난 말과 같이, 發聲機關인 牙舌唇齒喉들의 形象에 依하여 지었다는 象形起源說과 華東正音通釋韻考와 文獻備考에 나타난과 같은 樂理起源

說이 가장 的確한 說이다. 卽 한글은 繪畫 文字에서 發達한 西洋 諸文字와 다르고, 純全히 (다른 文字의 參考야 勿論 많았겠지만) 生理物理學的 現象에 根據하여 지은 科學的 創作物이다. 그러므로 한글은 羅馬字와 같이 알파베트式 文字이면서도 內容에 있어선 判異하게 다른 合理的 長點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生理物理學的 現象에 根據하였다는 그 生理物理學的 現象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의 體內的 喉舌唇齒: 等等的 物理的 現象이란 말이다. 어떤 空間에 있는 金石糸竹等 發聲體에 振動 摩擦 撞打等의 어떤 作用이 加하면 소리가 난다. 그러나 이 소리는 반드시 空間을 지나와야 우리의 귀에 들린다. 이 소리 材料를 聲源이라 하고, 音波가 進行하는 空間을 聲路라 한다. 그러므로 소리는 이 두가지 이 聲源, 聲路를 갖후야 비로소 우리에게 들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喉舌唇齒等은 金石糸竹等 發聲體에 相當하고, 口腔鼻腔等은 空間에 相當한 聲路요, 肺에서 내쉬는 숨이 聲帶 喉頭 唇齒舌: 等を 振動 摩擦 或은 그의 閉鎖한 것을 더뜨리는 作用은 金石糸竹等을 鳴동으로 때리는 등 作用과 같다.

世宗께서는 여기에 根據를 두시고, 上喉

下喉의 圓形을 象하야 ㅇ ㅎ ㅁ 等字를 지으시고, 舌과 齒의 三角形을 象하야 ㄱ ㅋ ㆁ ㄷ ㅌ ㄴ ㅈ ㅊ 等字를 지으시고, 口의 方形을 象하야 ㅁ ㅂ ㅅ 等字를 지으신 것이니, 이것은 肺에서 내쉬는 숨이 發音機關의 各部位의 閉鎖한 것을 부딪는 힘의 強弱을 따라 三種類로 나뉜다. 卽 輕할 땐 ㅇ ㄱ, 重할 땐 ㅎ ㄷ, 強할 땐 ㅋ ㅊ. 이것을 表로 보이면 別表와 같다.

閉鎖의 部力	閉鎖의 部位	後舌	舌端과 上齒齦	上唇과
	聲門	軟口蓋	硬口蓋	前舌面
輕	○	ㄱ	ㄷ	ㅁ
重	ㅇ	ㅋ	ㅊ	ㅂ
強	ㅎ	ㄷ	ㅊ	ㅂ

그리고 또 舌의 非伸非縮한 自然形態를 象하야 ㅅ 字를 지으시고, 舌의 伸하여 縱長함을 象하야 ㅈ 字를 지으시고, 舌의 伸長됨을 ㅊ 字로 象하고, ㅈ ㅊ ㅅ 等字를 지으시고, 舌의 縮하여 橫長됨을 象하야 ㅁ ㅂ ㅅ 等字를 지으시고, 舌의 縮橫함을 ㅁ ㅂ ㅅ 等字로 象하고,

外國人學者들은 어떻게 批評하였나? 그 冷靜한 評을 한번 들어봄이 의 意義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重要한 몇 개만이라도 極히 簡略하게나마 적어보고 擧筆하려 한다.

一、鄭麟趾의 評「:象形而字倣古篆 因聲而音協七調 三極之義 二氣之妙 莫不該括以二十八字而 轉換無窮 簡而要縝而通 故智者不崇朝而通 愚者可浹旬而學:音韻則 清濁之能辯 樂聲則 律呂之克詣 無所用而不備 無所往而不達 雖風聲鶴唳 鷄鳴狗吠 皆可得而書焉 (御製訓民正音序)」

二、李瀾의 評「:凡有音者 莫不有字 人稱倉籀以來 未有始也 (星湖僊說)」

三、申景濬의 評「:其爲字不多 而爲用至周 書之甚便 而學之甚易 千言萬語 纖悉形容 雖婦孺童叟 皆可得而用之 以達其辭 以通其情 此古聖人之未及研得 而通天下所無者也 (旅菴)」

四、柳僖의 評「:諺文 世間至妙之物:以中係初 以終係中 各有條脈 縱橫整齊 婦人孺子 咸能頓悟:(方傾子)」

五、李圭景의 評「:縱橫作字:以翻萬物 難狀之音 蓋以反切 合以成字 凡六千三百四十字 寔天地之奇文也:若隨聲成字則 增衍幾

何字 生生不窮焉 雖使倉史製字 何以如此 天下萬國 各有其國之書:俱不如我東諺字之簡易易曉也:(嘯雲)」

六、成俔의 評「:本國及諸國語音文字所不能記者 悉通無礙:(慵齋叢話)」

七、李晔光의 評「:夫諺書出而萬方語音 無不可通者 所謂非聖人 不可能者也:(芝峯類說)」

八、洪良浩의 評「:字形則奎璧圓曲之象 點劃則小篆分隸之體 明白簡易 使童婦人可以知之 引而伸之 足以盡天下之文:(經世正音音圖說)」

九、東國文獻備考 樂考 「:分爲初中終聲 字雖簡易 轉換無窮 諸國語音文字 所不能記者 悉通無礙:」

十、世宗實錄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于文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十一、英國人 개일의 評「:世宗은 東洋 뿐만 아니라 世界的으로 貢獻을 한 偉大한 임금이다. :무엇보다도 文字 發明은 世界的 자랑이다 (가일 博士와 周時經氏와의 對話의 上節)」

十二、小倉進平의 評「:諺文은 今日 學術上으로 確實히 훌륭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朝鮮語學史)」

十三、金澤庄三郎의 評「:子母 二十八字로 되었는데, 東洋 文字中 가장 進歩된 文字라 할 수 있다:(日本百科大辭典 諺文의 條)」

十四、휴·밀러의 評「:朝鮮文이 記憶하기 쉬우며 活用도 넓고 또 簡便한 것으로 組織의 纖巧는 알파베트로서도 世界에 그 儔匹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丙寅 十一月十日 朝鮮日報에 실은 朝鮮文과 耶蘇敎)」

十五、獨逸人 에카르트의 評「:만일 사람이 言語와 文字로써 한 民族의 文化 程度를 測定한다면, 朝鮮이 地球上에 第一位의 文化 民族의 地位에 설 것이다. 그 文字는 簡單하고 쉽고 表現能力이 特色이다:(Koreanische Konversations-Grammatik)」

以上을 보면, 어느 것이나 如出一口로 한글의 學習 實用의 便易와 構造의 妙를 讚揚하였고, 더구나 正音 創定 發布 當時에 이것을 極力 反對한 崔萬理等도 그 反對上 疏 가운데 「臣等 伏觀諺文制作 至爲神妙 創物運智 實出千古」라 하여, 실상인즉 讚嘆不已하였던 것이다. 이 밖에도 東西의 辭書, 叢書, 歷史等 言語 文字의 專門 文獻에 散見되는 한글의 讚辭가 꽤 많은 것이다. (끝)

첫재

글짓기 글음

(클 제) 글장님(文盲)을 없애자

(쓰는 법) (1) 순 한글로.

(2) 스무자배기 열줄로 된 원고지

열장으로 열 다섯장까지.

(3) 글씨는 청하게.

(4) 이름과 사는대를 밝히 쓸것. 학

생이면 학교 이름과 학년과 나
이(年齡)까지 밝히 쓸것.

(마 금) 명년 일월 십일까지.

(내는 때) 명년 삼월호 「한글」에.

(드리는 것) 뽑힌 글은 아래와 같이 드리기로
합니다.

첫재 (한분) 돈 삼원

둘재 (두분) 돈 일원씩

셋재 (다섯분) 「한글」 석달치씩

(알이) 글 지을 때에 글월(文章)이 써 좋아야

하고, 마름벌대로 맞아야 하고, 띄어 쓰기를 잘

하야 합니다.

한글 支社

鎮南浦 三和町

姜 焄

光州邑

崔奇一

東京市 品川區

大井水神町

一〇七九

姜鎬哲

載寧邑 日新里

朴周陽

鐵山邑 東平洞

李明克

義州邑 鄉校洞

劉天德

平北 七坪市

朴潤元

尙州邑

金成煥

統營邑

金永斗

高敞邑

鄭德寶

全北 全州邑

陳春海

天主教會

徐廷壽

平北 宣川郡

水清面嘉物南

洞

田蒙秀

慶南 金海邑

盧在甲

京城府 堅志洞 三二番地

總販賣所 漢城圖書株式會社

電話(光)一四七九番
振替京城七六六〇番

社告

地方에서 한글 支社를 設
置하고커 하시는분은 한번 書
面으로 물어 주시기를 바랍
니다.

朝鮮語學會

定價

一個月 七錢
三個月 二十錢
六個月 四十錢
一年 七十五錢

代金은
반듯이
선금을
要함.

廣告料

表紙 表面 二十圓
全 裏面 十五圓
普通頁 十圓

詳細는
相議를
要함.

昭和十年十一月廿八日 印刷
昭和十年十二月一日 發行

編輯兼 發行人 李允宰

京城府 花洞 一二九番地

印刷所 京城府 堅志洞 三二番地

印刷所 京城府 花洞 一二九番地

發行所 朝鮮語學會

振替 京城一〇〇四四番

忽三版

延禧專門學校
教授 文學士

崔鉉培 先生 著

중국어조사선말본

菊判 二百頁
定價 八十錢
送料 六錢

標準朝

鮮語文

法書인

제出現

朝鮮語學會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基準한 最初의 文法
書이다。著者가 한글 研究의 泰斗로 數十年 專心 研究한 要
領을 總匯한 것이니, 이것이 朝鮮語의 研究와 學習에 아울러
指針이 되는 基礎智識書이다。이 책의 評價는 發行이 아직 周
年이 못되어 三版이 거듭하고 또 賣盡에 가까운 것으로서 自
判할 것이다。무릇 朝鮮語에 뜻둔이로는 반듯이 손에 떠나지
못할 寶典이다。

發賣處

京城府花洞一〇〇四番地
振替京城一〇〇四番

朝鮮語學會

昭和九年 四月 十一日 (第三種郵便物認可)
昭和十年 十二月 一日 (每月一日一回發行)

한글 第三卷 第十號